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0쪽

01 ② 02 ② 03 ②

- 01** 이 시에서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가령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을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와 같은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 02** 필연적이라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연에서는 '우연히'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배를 매게 되는 것처럼, 우연히 찾아온 사랑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랑이 필연적으로 시작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03** <보기>를 통해 '배를 매는 일'이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 '나'의 인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1쪽

01 ① 02 ⑤ 03 ②

- 01** 이 시의 화자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을 운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한 설렘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 02**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그런 것'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는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의미하지, 사랑이 쉽게 경험해 보기 힘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03** ②의 '나'는 운명적으로 찾아온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감정으로 설레는 존재이다. 이에 비해 ④의 '나'는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희생하고 인내하는 존재이다.
- |오답 풀이|** ① ②의 '배'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④의 '배'는 사랑하는 대상이 물을 건너게 해 주는 화자 자신('나')을 의미한다.
- ③ ②에서는 '배'가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화자는 배를 통해서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에 비해 ④에서는 '나룻배'가 화자 자신이므로, 사랑하는 이를 태우고 물을 건너고 온

갖 역경을 묵묵히 견디며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희생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②와 ④ 모두 '나'라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 ⑤ ②에서 '배'는 '사랑하는 사람', '밧줄'은 '사랑의 인연', '구름, 빛,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라는 상징적 의미로 쓰이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역시 '나룻배'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존재를, '여울', '바람', '눈비' 등의 시어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②와 ④ 모두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2~13쪽

01 ② 02 ③ 03 탈색 04 ④ 05 ④ 06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07 ② 08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나'와 당신의 관계를 부각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01** (가)와 (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탈색'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희생하며 변함없이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나룻배'인 화자 자신과 '나룻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ㄴ/는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ㅂ니다'와 '-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2** (가)의 1연에서는 '나'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의 상태를 5연에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라고 표현하고 있다.
- 03** 이 시의 1연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음성 상징어인 '탈색'을 사용하여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04** (나)에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당신'의 모습은 '나'가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렸음에도 '나'를 무정하게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여 준다. 사

량의 본질이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날아온 '뱃줄을 잡'는 행위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어찌할 수 없이'는 사랑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그런 것'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는 당신을 위해 급한 여울을 건너고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이고 낮이고 당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배가 낡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면서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가)에서의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나)의 '배'는 당신을 기다리며 희생하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05 ㉠, ㉡은 모두 당신을 위해 '나'가 견디는 고난, 역경,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난, 역경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희생적 태도를 부각한다.

06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에는 화자가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를 보면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가)의 '배를 매'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을, <보기>의 '배를 미'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사랑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을 나타내며, <보기>의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낸 후에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그리움을 나타낸다.

③ (가)의 '천천히', '조용히'는 사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아슬아슬히'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낼 때의 아픈 마음을 환기한다.

④ (가)의 '호젓한 부둣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을, <보기>의 '뾰지도 않는 길'은 이별 후의 길을 의미한다. (가)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의 미래에 대한 막막한 심정이 드러나 있

지 않다.

⑤ (가)의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보기>의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배를 밀듯이 떠나보내려는 것을 나타낸다.

※ <보기> 작품 개관_ 배를 밀며(장석남)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화자	이별을 겪은 '나'
시적 상황	배를 미는 행위에서 이별의 과정을 연상하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함.
화자의 정서와 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릴 수 없음.
주제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의 전환이 나타남.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드러냄. 배를 미는 행위에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을 비유함.

08 (나)의 시는 1연과 5연에서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나'와 당신의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서사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6~2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③	23 ③	24 ③
25 ②	26 ⑤	27 ②	28 ①	29 ④	30 ③	31 ③	32 이
녀석의 장인님		33 ①	34 ④	35 ⑤	36 ①		

01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그에 대한 생각과 심리 등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2 '나'가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 성례를 한다는 말에 한 것에 대해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고 한 것에서, '나'가 장인의 말을 반박할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장인이 내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따라 점순이와 마주 서 이야기도 한 마디 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② '나'는 장인이 때가 되면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으며,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점순이와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일곱 달 동안을 했다.

④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접기도 할뿐더러 이 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장인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나'는 눈어림으로 점순이의 키를 재 보고는 했는데, ㉠은 이렇게 키를 재 보고 내뱉는 말이다. 즉 ㉠의 비속어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04 '나'가 일을 하기 싫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장인은 '나'의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행동에 대응하는 주변 인물인 장인의 행동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05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크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물을 대신 길어다 주기도 하고 '소낭당'에 치성을 여러 번 드렸다. 그럼에도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자 ㉡와 같이 생각하는데, 이는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의 처지에 체념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06 '나'는 어저께 장인과 싸운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장인과 싸운 것이 결코 장인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장인에게 뺨을 맞은 후 본래부터 지닌 미움이 더 강해졌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마)에서 장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름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뇌물을 착취한다. 이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약이 오르면 손버릇이 아주 못됐으며 욕을 잘하는 것을 통해 다혈질이며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④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며, 동리 사람들에게도 욕을 하는 것에서, 타인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작인이 닭 마리나 줌 보내지 않거나 애벌논 때 품을 줌 안 주든가 하면 소작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에게 인색하게 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08 작년 이맘때 늦잠을 자던 '나'는 장인이 돌맹이를 던져서 발

목을 빼었다(㉢). 그때 그 일로 여러 날을 앓으며 일을 못 했는데, 장인이 장가들게 해 준다는 말로 '나'를 꼬셔서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장인이 혼례를 미루므로 '나'는 화를 내고 집으로 가려 하다가 참는다(㉣). 그리고 어제 '나'는 장인에게 뺨을 맞고 장인이 무색해서 겸연쩍어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일을 떠올린 것이다.

09 장인은 ㉠에서 '나'가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혼례를 시켜 준다면 '나'를 회유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에서는 점순이가 커야 한다며 혼례를 못 시켜 준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장인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0 ㉢는 자신의 소매를 잡고 구장한테 가려고 하는 '나'의 태도에 장인이 당혹스러워서 한 말이다. 장인은 ㉢와 같은 말을 하며 안 간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장인은 '나'가 사위이지 머슴이 아니기 때문에 사경을 줄 수 없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에서 장인은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안 시켜 주는 것이 점순이의 키 때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④ ㉡에서 평상시에는 소를 부릴 때 어깨가 으쓱으쓱하며 흥겨웠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 전날'은 계속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는 평상시의 모습과 대비되는 '그 전날'의 심리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나'는 소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11 [A]에서는 봄의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면서 '나'가 춘정을 느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봄이라는 계절이 이성애에 대한 애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봄의 계절의 특성이 '나'가 점순이와 성례를 올리고 싶은 심리와 연결되어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12 화전발을 갈고 있을 때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난(㉣) '나'는 장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며 피병을 부리다가 장인과 대립한다. 그리고 혼례에 대한 답판을 지으려고 ㉤에서 장인을 끌고서 구장한테 가자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의 '울화'는 ㉤에서 '나'가 장인을 데리고 구장님한테 답판을 지으러 가는 이유가 된다.

13 이 글에서는 점순이의 외양을 제시하며 점순이에 대해 '나'가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참외 중에서 '젤 맛 좋고 예쁜 감참외' 같다는 말은 '나'가 점순이에게 호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점순이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감참외'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 점순이의 부정적인 성격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순이를 좋아

하는 마음을 부각하여 오히려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점순이의 행동에 대한 서술을 통해 '나'가 점순이를 배려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차)에서는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를 강하게 요구하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나'가 점순이가 혼인할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나'에게 점순이는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다. 성례 문제를 둘러싼 점순이와 나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 14 ㉔은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를 부추기는 말을 건네는 것과 이어지므로, 점순이가 남녀가 내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㉑의 '가끔가다 몸이 너머 빨리빨리 논다.'는 것은 점순이가 경망스럽고 주의가 산만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㉒에서 점순이가 무안해할까 봐 훔투성이 밥을 먹는 '나'의 행동을 통해 점순이를 배려하고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㉕의 '이게 무슨 소린가'를 통해 '나'가 점순이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㉖에서 '나'는 성례시켜 달라고 하라는 점순이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하여 그 뒷모양만 바라보고 있다.

- 15 '나'는 점순이가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싶어 반가운 감정을 느낀다. 이는 점순이가 자신과 혼례를 치를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6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지역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친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 17 ㉔는 구장을 희화화하여 해학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구장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㉑에서 '사람은 점잔해야 한다구' 말하고 수염을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는 것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과시적인 구장의 성격을 희화화한 것이다.

② ㉒에서 '나'가 장인을 뒤로 떼다밀고 허둥지둥 달겨드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나'는 '장인님'이라고 했다가 '빙장님'이라며 호칭을 바꾸는데, ㉔를 통해 '빙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나'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구장이 ㉔에서 쯤대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소작인인 구장이 마름인 장인의 위세에 눌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8 ㉔에서 구장은 앞서 '나'의 편을 들다가 다시 장인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쯤대 없고 우유부단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19 '나'는 성례를 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거나 장인을 구장에게 데리고 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장인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일을 더 시키려 하고 있다. 빨리 성례를 하고 싶은 '나'와 이를 미루려는 장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㉑에서 '나'는 장인이 자신의 성례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사경을 내라며 심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장인은 ㉒에서 점순이가 키가 안 커서 성례를 못 시켜 주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자 '나'는 ㉒에서 장모의 체구를 근거로 키 핑계를 대는 장인을 반박하고 있다.

- 21 몽태의 말로 미루어 보아, 땅을 얻어 부치는 소작농인 구장에게 마름인 장인이 협박이나 회유의 말을 하여 구장이 자기 편을 들게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처럼 소작을 계속하게 해 준다는 회유의 말이 ㉔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 22 '나'는 자신이 장인과 싸운 것에 대해 전혀 뜻밖의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장인과의 싸움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23 ㉑에서 일부러 양반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장인의 행동을 통해 장인의 허세를 엿볼 수 있다. ㉒는 장인이 결혼을 미끼로 데릴사위를 들이는 이유가 드러난 부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장인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성격이 드러난다.

- 24 ㉔로 보아, 장인은 돈이 드는 머슴을 대신해서 돈이 들지 않는 데릴사위를 들여 일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집안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데릴사위를 계속 들이는 것이다.

- 25 '나'는 몽태가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에 장인을 미워해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몽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몽태가 장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서 장인을 헐뜯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 26 (머)는 점순이가 구장에게 갔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온 '나'를 나무라며 충동질하는 부분으로, '나'가 점순이의 말을 듣고 장인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었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에서 '나'의 순박한 면모를 알 수 있다.

② '나'의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건담!'이란 말에서 '나'의 소

극적인 성격을, 이 말에 대해 점순이의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라는 말에서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점순이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 것에 대해 종알거리자 자신이 '더 단단히 뒹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며 과거 태도를 후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점순이는 구장한테 다녀왔음에도 좋은 결과가 없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점순이도 '나'와 성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나'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로,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스꽝스럽고 무지한 모습을 보이며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28 이 글은 1인칭인 '나'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비)에서 '나'는 장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9 점순이로부터 '바보'라는 말을 들은 후,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성례를 결정하기 위해 피병을 부르며 맞서고 있다. 이는 장인으로부터 점순이와의 혼례를 약속받았다는 '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30 '나'가 ㉠에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 것은 장인의 버릇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아채며 성례를 강하게 요구하라고 한 점순이를 의식해서이다.

31 '나'는 장인이 자신을 내쫓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장인이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고 말한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장인이 성례를 약속해도 장인과의 대립을 지속하려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32 '녀석'과 '장인님'은 각각 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으로, 이러한 모순된 표현을 통해 장인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성을 부여하고 있다.

33 ㉡은 끝까지 장인의 의도를 모르는 '나'가 장인을 착한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둔하고 순박한 '나'가 장인의 교활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4 이 글에서는 '나'가 장인과 화해한 사건을 먼저 제시한 후에 장인과 싸우는 내용을 뒤에 제시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장인이 대립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장인이 화해하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을 뿐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나란히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고, 1인칭 서술자 '나'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⑤ '장인은 '나'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수룩한 '나'는 장인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와 장인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실에 대한 인물의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35 ㉢는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드는 행동을 하자 '나'가 망연자실해지는 모습이므로,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맹세까지 하며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일을 하러 나가는 '나'의 모습은 장인의 술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면모를 보여 준다.

② '술개미에 쟁 닭의 소리'는 술개에게 붙잡혀 가는 닭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소리를 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장인이 다급한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문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 어수룩하고 이해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36 점순이는 적극적으로 성례 요구를 하라며 '나'를 충동질하고, '나'는 그러한 점순이의 태도를 믿고 장인과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나'의 기대와 달리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고 있다. 이에 '나'는 기운이 탁 꺾이면서 사건 전개 양상이 반전되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28~29쪽

01 ④ 02 ④ 03 ㄹ-ㄱ-ㄴ-ㄷ 04 ④ 05 ④ 06 ④

01 장인은 점순이와의 혼례를 핑계로 '나'를 머슴처럼 부리고 있으므로, 장인이 '나'의 처지에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지 않고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건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에 주목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고,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소설은 결말을 절정 부분 중간에 삽입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나'와 장인의 어정쩡한 화해로 뒷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나'와 장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며,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와 '나'의 얼빠진 모습으로 작품을 마무리해 해학성을 부각하고 있다.

03 점순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혼례를 조르라고 부추기자(ㄹ)

장인에게 혼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나'는 배가 아프다고 한 뒤 장인과 싸운다(ㄱ). 그리고 담판을 짓고자 구장에게 장인을 데리고 간다(ㄴ). 이후 '나'는 몽태네 집에서 몽태로부터 장인에 대한 험담을 듣는다(ㄷ).

- 04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온 산골짜기에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로, '나'는 이 시기에 나른하고 울렁울렁한 춘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연결되어 이성을 향한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5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순진하고 여러모로 어수룩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서술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이야기나 생각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 스스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 06 이 작품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중 상황이나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을 뿐,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지는 않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30~31쪽

01 ⑤ 02 ③ 03 ① 04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의 노동력 부족으로 장인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05 ① 06 ③

- 01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인 '나'이다.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장인, 점순이와 있었던 사건과 그에 대한 생각, 심리 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회상을 통해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 앞날의 일을 가정한 내용은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나'와 장인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물의 반응이 과장되게 제시되기는 하나, 이는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는 요소로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는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들이다.
- 02 장인은 '나'에게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있을 뿐, 일손 부족을 핑계로 대고 있지는 않다.
- 03 ④는 '나'가 점순네 데릴사위로 들어왔을 때의 일이고, ①은 어저께, ②는 그저께(어제의 전날), ③과 ⑤는 작년 이맘때 일이다. '나'가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나서 일을 하지 않고 피병을 부리다가 '장인과 싸우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 04 '나'는 피병을 부렸다가 장인에게 뺨을 맞는데, 장인은 '나'를 때린 후 무색해하고 있다. 이에 '나'는 ㉠와 같이 판단하는데,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이 일손 부족으로 아쉬워하며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5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는 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일을 하고 기한이 끝나면 혼례를 치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말이다. '나'는 장인의 교활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이므로, 장인의 이중적 태도가 내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장인과 대립하고 있다.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는 장인과 외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장인에 대해 한 말이다.
 ③ '나'는 혼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다가 장인에게 혼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배가 아프다고 한다. 이는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
 ④ '나'는 며칠 앓다가 장인이 가을에 혼례 시켜 준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띄어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장인이 또다시 점순이의 키 핑계를 대자 '골 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멧돌에다 메꿨고 고향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는 장인과의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는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꼭꼭 참는다. 이는 '나'가 장인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는 것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음을 보여 준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점순이와 성례를 하고 싶은 '나'와 성례를 미루려는 장인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06 ㉠은 장인에게 점순이와의 혼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 싸운 것이지, 장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3) 극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34~41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① 16 ③
 17 ① 18 ② 19 ④ 20 준경에 대한 보경의 사랑 21 ⑤
 22 ⑤ 23 ② 24 ① 25 ⑤

- 01 이 글은 극 갈래의 하나인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사건이 전달된다.

|오답 풀이| ① 장과 막으로 사건이 전달되는 것은 희곡에 해당한다.

③ 시나리오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다.

④ 소설과 달리 극 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적 반응이 주된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서정 갈래이다.

02 S# 6에서는 동생에게 내복을 챙겨 주는 누나 보경과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준경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준경이 내복 바지를 들고 나오는 보경을 피하는 모습은 인물 간의 갈등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S# 5에서는 어린아이의 손에서 큰 손으로 인물의 모습이 변화되는 장면을 통해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② S# 5에서는 배경 속의 '엄마 별' 그림을 통해 인물이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S# 6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여 그 지방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S# 10에서는 준경의 목소리를 통해 준경이 사는 마을에 기차역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03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오십네 번째 편지니더.'라는 편지 내용을 통해 준경이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꾸준히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04 이 글의 'V.O.'는 준경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음향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편지를 읽는 준경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준경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자신이 읽는 형식으로 전달된다.

④ S# 5~S# 17에 걸쳐 편지의 내용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⑤ 편지의 내용을 통해 기차역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관객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05 태운은 무뚝뚝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다고 했으므로 태운이 준경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준경과 태운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준경이 열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경의 손을 더욱 꼭 잡는 것으로 보아, 준경이 보경에게 심리적인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따뜻한 물을 따라 후후 불어 보경에게 내미는 모습으로 보아 준경이 보경을 챙겨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인 태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객차로 향하는 준경의 모습에서 준경이 태운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버지에게 무뚝뚝한 준경을 나무라는 의미가 담긴 말로 보아, 준경과 아버지가 원만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보경의 마음을 알 수 있다.

06 S# 16에서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통학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안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농담이 아이러진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옳고 기차길만 있는데'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기차역이 옳으니 마을에서 나갈라하면 몇 시간씩 산길을 걷든가, 아니면 기차길을 걸어서 승부역이나 분천역으로 가는 수밖에 옳니더.'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⑤ '화물 열차는 시도 때도 없이 다녀서, 터널이랑 다리에서 죽은 이가 한둘이 아납니더.'를 통해 알 수 있다.

07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양원역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에 대통령이 양원역을 만들어 줄 것을 하달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양원역 건설이 미루어졌으므로, 대통령의 하달 후에 곧바로 양원역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문도 없이 벽으로 입구가 가려진 화장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로 지어져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④ 준경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양원역 역사가 완성되었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원칙상 열차가 설 수 없다.

⑤ 준경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대통령이 양원역 건설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양원역 건설을 하달하였으므로, 준경의 편지가 양원역 건설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08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을 모아 만든 양원역에 열차가 서는 것을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을 뿐이며, 서로 먼저 촬영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다. 철구 삼촌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으므로 촬영 경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양원역이 아직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개통'이 아님에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역사에 대해 자축하는 의미로 플래카드에 '축 개통'이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㉓는 마을 사람들의 자축의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열차가 정차하기를 바랐지만, 기대와 달리 역을 그냥 통과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㉔에는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 당황스러움 등의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⑥는 기차가 들어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청각 신호일 뿐이며,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 사람들과 태운의 갈등은 태운이 역을 무정차 통과한 이후에 일어난다.

㉔는 마을 사람들이 열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 있는 곳으로, 열차를 타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기대감을 안고 모여 있는 곳으로, 사건 전개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은 준경이 직접 말해 준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준경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준경 때문에 엄마와 누나가 죽었다고 한 기사 내용을 보고 태운은 잘못된 기사라고 했다.

② 태운은 잡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③ 준경은 엄마와 누나가 죽은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잡지에 실었다.

⑤ '제가 느끼기에 아버님께서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라는 홍보과장의 말을 통해 홍보과장이 태운에게 준경이 어려서부터 양원역을 만들려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을 알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S# 93에는 태운과 홍보과장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홍보과장의 말에 태운이 당황하고 있으므로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12 '준경 학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닙니다. 준경 학생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를 통해 태운은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 준경이 직접 해 준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운이 철도청 홍보과 탓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13 준경이 죽은 보경과 대화를 나누는 초현실적인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준경이 그동안 숨겨 온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⑤ 유학 문제에 단호한 준경과 이를 말리는 보경이 나타나기는 하나, 갈등이 심화되거나 상대방을 적대시키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글의 맥락상 [A]에 말줄임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준경이 그동안 숨겨 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5 준경은 자신이 양원역을 만들면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고, 엄마와 누나를 죽게 만든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보경에게 고백하고 있다. 이로 보아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버지에게 용서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임을 알 수 있다.

16 열차 운행을 대신 해 주겠다는 박 기사의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며, 준경이 상 받는 데 함께 가지 않는 태운의 모습에서 그가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7 이 글의 회상 장면인 S# 117~S# 119는 태운이 운행한 열차와 보경의 사고사에 관한 것으로, 태운이 오랫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온 이유가 자신이 운행한 열차에 보경이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회상 장면은 태운이 털어놓은 속마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18 태운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저 멀리 철교 위를 달러가는 사람들을 보고 위험을 느껴 천천히 가기 위해서이지 보경과 준경을 찾아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준경이 놀란 것은 태운의 이야기가 준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③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속력을 높이는 태운의 모습은 태운이 사고 사실을 모르고 열차 운행을 계속했음을 보여 준다.

④ 통닭 봉투를 챙겨 다시 나가려는 태운의 모습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성애를 알 수 있다.

⑤ 벌칙 문이 열리며 박 기사가 달려 들어오는 것은 급하게 전달해야 할 사건이 있음을 암시한다.

19 S# 119에서 박 기사는 화면 밖에서 일어난 보경의 사고 소식을 태운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관객도 화면 밖의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오답 풀이| ⑤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극적 긴장감이 S# 119의 박 기사를 통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조된다.

20 보경이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준경의 '트로피'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에서, '트로피'는 준경에 대한 보경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준경이 안 키울 거라! 즈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 할 거냐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박 기사가 열차 운행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준경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마을 사람들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태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경이 태운을 원망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③ 태운이 하루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2 태운이 그동안 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몰랐던 열차에 보경이 죽게 된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준경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왜 지금 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따지는 준경에게 태운이 '니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란 말을 꼭 해 주고 싶었다.'라고 대답한 것에서 태운이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이유를 알 수 있다.

24 ‘(더 이상 참지 못하고)’에서 보듯이, ㉠에는 자신에게 빨리 사실을 말하지 않은 태윤에 대한 준경의 원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 ‘고개를 돌린 준경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말을 잊지 못하는 준경.’에서는 태윤의 말을 듣고 준경이 지녔던 원망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울음을 참으며 어색하게 웃는 태윤의 모습에서 태윤이 준경에 대한 오해를 풀고 준경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경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태윤은 자신의 속내를 어렵게 꺼내놓고 있으므로 그런 인물의 심리를 잘 표현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다.

② 준경은 태윤의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심정을 표정을 통해 잘 표현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다.

③ 준경과 태윤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그러한 점을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나도록 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다.

④ 태윤과 준경은 모두 지역 방언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가 잘 나타나도록 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다.

⑤ 편지는 우체국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므로 기차역이 없는 공간적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

04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과거 회상에 해당하는 인서트(Insert) 장면을 넣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생생하게 재연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준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여러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② 인물이 독백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여러 개의 사건이 병렬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⑤ 서로 관련 없는 사건을 연달아 보여 주는 형상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05 (1) S #5에서는 V.O. 기법을 활용하여 화면 밖에서 편지를 읽는 준경의 목소리를 통해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통해 준경이 처한 상황과 기차역을 만들려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2) 어린아이의 손이 고등학생의 큰 손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엄마 별’이라고 쓴 별자리 지도를 확대해 보여 줌으로써 준경이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06 서사 갈래인 소설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시나리오도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42~43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1) 편지 (2) 시간 (3) 그림 06 ①

01 태윤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따라서 태윤이 융통성이 있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은 두 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나는 기차역 건설을 두고 준경이 사회 현실과 겪는 갈등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온 준경과 아버지의 갈등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누나와의 이야기는 중심 사건도 아니고, 준경은 누나가 아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03 이 글은 기차역이 없는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경이 철교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게 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고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준경과 태윤의 화해가 지연되는 것과 공간적 배경은 무관하다.

③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기차가 마을에 서지 않는 것이지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44~45쪽

01 ③ 02 ④ 03 ③ 04 태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객차로 향하는 준경과 무뚝뚝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는 태윤의 모습을 통해 준경과 태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05 ④ 06 ② 07 기차가 양 원역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을 드러낸다.

01 ‘S# 10’은 ‘조금씩 동이 터 오는지 푸르스름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흔들며 철길을 걸어가는 준경과 보경.’의 장면을 보여 주면 되므로 카메라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 가며 촬영할 필요가 없다. 카메라의 시선은 준경과 보경이 걸어가는 모습에 맞추면 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S# 6에서 S# 17로 보경과 준경이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② S# 10의 화면에는 배경과 인물의 행동만 나타나지만, S# 6에서는 보경과 준경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④ S# 12에서는 S# 13과 달리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통일호 열차’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⑤ 새벽을 배경으로 하는 S# 13과 달리 S# 16과 S# 17은 낮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02 시나리오의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 달리 장소의 이동에 따른 장면 전환에 제약이 거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시나리오의 무대 상연이 아니라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창작된다.

② 시나리오의 관객이 사건의 전개에 개입할 수 없다.

③ 시나리오에는 사건을 서술하는 작품 밖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⑤ 정서나 감정을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행동을 통해 직접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03 ㉠은 인물이 처한 상황과 기차역을 만들려는 이유를 드러내 주며, 인물의 심리 변화가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준경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려 준다.

04 태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객차로 향하는 준경과 역시 무뎠던 얼굴로 앞만 보고 있는 태운의 모습을 통해 준경과 태운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태운은 열차가 양원역에 정차하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역에 정차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고 통과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준경도 열차가 양원역에 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열차가 통과하자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이다.

② 보경은 준경이 열차를 세우지 않은 태운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열차가 서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하였지만 준경을 원망한 것은 아니다.

⑤ 철구 삼촌은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을 그냥 통과하는 열차 풍무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며, 열차가 역에 서지 않은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06 마을 사람들은 기차가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미 양원역에 모여 있으므로, '뿌우' 하는 열차 기적 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한 계기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기차가 점점 양원역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은 점점 커지는 음향을 통해 연출될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기차가 양원역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은 마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에 해당한다.

④ 태운이 모는 기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함으로써 준경과 태운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므로, ㉠은 보경이 준경을 보며 안절부절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⑤ ㉠은 기차가 마을에 설 것으로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은 태운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므로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다.

07 '축 개통'이라고 손으로 쓴 플래카드는 기차가 양원역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을 보여 주며, 철구 삼촌

의 카메라는 마을에 처음으로 기차가 서는 광경을 기념하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플래카드'와 '카메라'는 양원역에 기차가 설 것이라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4) 교술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48~50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9 ②

01 글쓴이가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 글쓴이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준다.

② 글쓴이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본 설치 미술 작품이다.

④ 이 작품을 통해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았다고 하였다.

⑤ 기존 자동차의 해체를 통해 그네 침대라는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난 작품이다.

02 글쓴이는 출퇴근과 같은 이동은 물론 장을 보고 많은 물건을 옮기기 위한 목적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 차를 몰고 교외에 나가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진 이후에도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3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 모순된 욕망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 것이다.

04 글쓴이가 풀 비린내 사건을 겪으면서 내적 갈등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글쓴이가 겪는 외적 갈등과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05 글쓴이는 죽은 풀벌레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차장에 갔으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몸서리치며 두려움을 느꼈다.

| 오답 풀이 | ① '그 후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를 통해 글쓴이는 운전할 때마다 풀벌레를 죽게 한 기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를 통해 글쓴이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의 잔해를 보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가 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다고 한 것에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를 통해 글쓴이는 인간에게 편리를 주는 문명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글쓴이가 손을 씻고 또 씻은 것(㉔)은 풀벌레의 생명을 인간 자신의 죄를 씻고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서리치는 기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을 씻는 행위가 글쓴이가 겪은 예상치 못한 충격(㉓)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던 것은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릴 때 풀벌레들이 차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② 글쓴이는 풀벌레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씻고 또 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풀 비린내’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고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⑤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은 풀벌레 사건을 겪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07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08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를 소유하게 되면 글쓴이처럼 생태적인 발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㉓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9 ‘피비린내’(㉔)는 글쓴이가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졌을 때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㉔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풀 비린내’(㉓)는 자동차 운전으로 희생된 풀벌레들로, 글쓴이가 죄의식을 느끼는 대상이다.

③ ‘풀 비린내’(㉓)는 글쓴이가 직접 운전을 하며 경험한 것이고, ㉔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졌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글쓴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④ ‘풀 비린내’(㉓)와 ‘피비린내’(㉔)는 모두 자동차의 편리함이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문명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환기한다.

⑤ ‘풀 비린내’(㉓)와 ‘피비린내’(㉔)는 모두 후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명 파괴에 대한 인간 문명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51쪽

01 ② 02 ④ 03 ①

01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라는 설치 미술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았다고 하였지만, 이 작품이 거둔 예술적 성취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았다.

02 이 글은 수필로,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사소해 보이는 풀벌레의 죽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슬견설」의 글쓴이도 큰 동물인 ‘개’나 하찮은 생물인 ‘이’나 모두 생명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글쓴이는 모두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소중하다는 생태주의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52~53쪽

01 ④ 02 ⑤ 03 초기에는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 즉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점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밀폐된 공간, 즉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로 자동차에 익숙해져 갔다. 04 ③ 05 ④ 06 생명을 아끼는 티베트의 승려들의 태도와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살생을 하게 된 글쓴이 자신을 비교하여 생명을 아끼는 기계 문명의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01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는 인간이 모순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것이 글쓴이가 성찰을 통해 도달한 경지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본 독자라면 이러한 글쓴이의 경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운전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③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길들여지고 있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타낸다.

⑤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은 생태주의자인 에민 탕스뎀이 인간의 모순된 욕망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02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처럼 굳이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㉔이 ㉑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행되는 기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감성적 기계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그네 침대'라는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것이다.

②, ③ '달리는 무기'는 자동차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충족해 주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④ '달리는 무기'와 '아늑한 공간'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현대인의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가 충족해 주는 것을 말한다.

03 글쓴이는 운전 초기에는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다가, 필요에 따라 운전을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차 자동차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져 갔다. 이를 인간의 '모순된 욕망'과 연관 지으면, 초기에는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 즉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점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밀폐된 공간, 즉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로 자동차에 익숙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04 글쓴이는 폴 비린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임을 깨닫고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역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㉔)는 글쓴이가 살생의 죄를 씻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㉑은 글쓴이가 경험한 '폴 비린내' 사건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고 당혹스럽다고 한 것이다.

② ㉑은 글쓴이가 운전을 하는 동안 폴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고 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③ ㉑은 자신이 한 행위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글쓴이의 떨리는 심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⑤ ㉑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06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글쓴이는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살생 행위를 하게 된 자신과 이들을 비교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기계 문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54~61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② 06 '-도 없이', '-니다', '-느/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 07 ① 08 ③ 09 ② 10 ③
11 ① 12 ② 13 해설 참조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해설 참조 19 해설 참조 20 ② 21 ① 22 ① 23 해설 참조

01 (가)는 '구름과 빛과 시간'을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나는 나룻배/당신은 행인'을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나)에서만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③ '나는 나룻배/당신은 행인'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대비하여 '당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는 '털썩'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2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랑을 처음 하면서 느끼게 된 벅찬 감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통해, 사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②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③ '구름과 빛과 시간'은 '배'와 함께 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랑은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빛이 환한 바다 위에서 파도에 일렁이는 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사랑에 빠져 설레는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강조하고 있다.

03 (나)에서 화자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당신'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돌아올 것이란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04 ㉑은 배가 떠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배'와 만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㉒은 화자가 '당신'을 만나 함께 건너야 하는 곳으로 화자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05 (가)에서 '어찌할 수 없이'는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6 이 시에서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에서 '-도 없이'의 반복, '맨다', '닿는다'에서 '-다'의 반복, '받는 것', '되는 것', '매어 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에서 '-니/는 것'의 반복, '구름과 빛과 시간'의 반복이 나타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7 이 작품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심리 등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서술자가 자신이나 장인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지만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어수룩해 장인이 교활하게 자신을 속이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1인칭인 '나'이다.

⑤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고 있다.

08 '나'는 장인이 자신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고 여기고 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이 곤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9 (가)에서 서술자인 '나'는 장인이 성례를 미끼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자 장인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기 싫은 생각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멈춘다. '나'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기는 하나, 독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②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일만 부려 먹는 장인에게 불만이 많은 상태이므로, 독자는 장인이 밉지 않다는 '나'의 말을 의심할 수 있다.

③ '나'는 장인이 마름으로서 인심을 잃은 객관적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장인이 인심을 잃었다는 '나'의 말에 대해 독자의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다.

④ 독자는 서술자인 '나'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장인이 '나'에게 큰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⑤ '나'가 일을 하면 장가들게 해 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속아 다시 일을 나가는 어수룩한 모습에서 독자는 '나'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0 (나)에서는 '나'에 의해 장인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장인은 자신의 이익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궁색하게 생활한다는 내용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11 (마)에서는 봄의 분위기를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절적 배경은 젊은 청춘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여 사랑을 부추기는 것으로, 이성을 향한 '나'의 내면 심리와 연결되고 있다.

12 장인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배가 아프다며 눈독으로 올라온 '나'의 먹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은 '나'의 속셈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장인은 '나'가 또 피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나'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이유를 물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장인은 장가들게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를 설득해 '나'가 일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④ ㉢에서 장인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점순이의 키 때문이라고 말하며 성례를 요구하는 '나'를 나무라고 있다.

⑤ ㉣에서 장인은 '나'가 머슴이 아니라 사위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경을 달라는 것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사위라는 '나'의 지위를 확인해 주며 '나'를 회유하고 있다.

1등급 서술형

13 **|예시 답|** '이놈의 장인님'은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허투루 대하는 장인에 대한 '나'의 불만이 담긴 표현으로, '나'는 이러한 심리를 비속어와 경어를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어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성례 문제에 대한 장인의 태도와 '나'의 심리를 포함하여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성례 문제에 대한 장인의 태도와 '나'의 심리를 포함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효과에 대해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성례 문제에 대한 장인의 태도와 '나'의 심리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4 S# 118과 S# 119에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인물의 독백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두 개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하지 않으며, 사건이 병렬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도 않다.

⑤ 화면 밖에 존재하는 인물의 목소리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보경이 준경에게 “니 잘못도 아닌데, 왜 그걸 아버지한테 용서받으라 하노? 엄마랑 내가 잘못된 건데 왜 자꾸 니 잘못이라 하는데?”라고 말하는 데서 엄마와 자신의 죽음에 준경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경의 잘못에 대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는 ‘사고 당했다. 철교서 떨어졌다.’라는 박 기사의 말에서, ③은 ‘내 니를 사랑하는 걸 ~ 니를 멀리한 거다…….’라는 태윤의 말에서, ④는 ‘내놓다가 엄마가 죽고 누나도 내 땀에 그레 뻘어도’라는 준경의 말에서, 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속력을 높이는 태윤’에서 알 수 있다.

16 S# 119에서는 화면 밖에서 일어난 보경의 사고가 박 기사에 의해 전해진다. 그러나 관객도 박 기사가 전달한 정보만을 알게 되므로, 관객이 태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17 (나)에서는 준경이 보경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준경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태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나)에서 고백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갈등 해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준경은 아버지에게 칭찬도 받고 용서도 받고 싶어 양원역을 만들려고 했다는 고백을 한다. 이에 보경은 준경에게 잘못이 없다며 준경이 한 고백의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③ (마)에서는 태윤의 고백을 통해 준경의 오해가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마련된다.

④ (마)에서는 고백의 주체인 태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준경을 대상으로 태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나)에서는 준경이, (마)에서는 태윤이 오랫동안 숨겨 온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 서·논·술형

18 | 예시 답 | ㉠ 엄마와 누나를 죽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칭찬도 받고 싶어서이다. ㉡ 엄마와 누나의 죽음이 준경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어 준경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해 주고 싶어서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은 ‘용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되게 서술하고, ㉡은 ‘잘못 없음’,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서술한 경우	5
	㉠과 ㉡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술형

19 | 예시 답 | ㉠을 이미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태윤이 준경을 차갑게 대하면 대할수록 준경에 대한 태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상대를 미워하는 행위가 상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아이러니의 개념을 ㉠에 담긴 인물의 심리와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관련지어 인물의 심리와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아이러니와 관련지는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에 담긴 인물의 심리나 의미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0 글쓴이는 ‘폴 비린내’와 ‘피비린내’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폴 비린내’가 ‘피비린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지고 있는 인류를 경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자기 고백적인 문체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③ 글쓴이는 ‘폴 비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도치 않게 폴벌레를 살생하게 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폴 비린내’와 함께 ‘피비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동차가 지닌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계라는 글쓴이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티베트의 승려들’이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언급하며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고 하였다. 이것은 글쓴이가 성찰을 통해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글쓴이의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 이 글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설을 제시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이 글과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② 큰 동물인 ‘개’와 하찮은 생물인 ‘이’를 예시로 들어 대조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일상적인 소재인 ‘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④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정-반-합’으로 논박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⑤ 대화 형식을 통해 '이'와 '개'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와 '어떤 사람'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2 (가)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를 몰고 서울까지 다녀온 경험을 통해 자동차가 풀벌레와 같은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이다. 이 경험을 통해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1등급 서논습형

23 | 예시 답 | ㉠ 비유적 표현으로,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함축한다.

㉡ 설의적 표현으로,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모두 죽기를 싫어하므로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표현 방식과 함축적 의미를 글쓴이의 의도와 관련지어 ㉠과 ㉡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의 표현 방식과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표현 방식이나 함축적 의미 중 하나만 쓴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 다변화 시대, '나'의 길 찾기

(1)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66~70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 ㉢ 07 ②
 08 ④ 09 ㉠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 역량,
 ⑥ 자세

01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책이나 매체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읽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권의 책만 집중적으로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2 이 글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는 글로,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신나게 사는 삶, 의미 있는 삶,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몰두하며 사는 삶을 바람직한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나 벨슨 만델라의 예를 들어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며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몰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우위를 따지고 있지 않다.

04 진로 독서를 위한 매체 자료이므로, 영상 매체는 물론 문자 매체, 디지털 매체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본다.

|오답 풀이| ①, ② 진로 독서를 위해 책이나 매체 자료를 탐색할 때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볼 수 있다.

③, ⑤ 필요한 책을 찾을 때에는 책의 제목이나 목차, 서평 등을 훑어보며 책의 내용을 추측하고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05 진로 독서를 하기 위해 수집한 책이나 매체 자료의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읽기에 적절한지를 따져 기존의 도서 목록에 있던 책이나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책이나 자료를 넣을 수도 있다.

06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책이나 자료를 선정하여 읽되, 주어진 시간과 상관없이 읽기 목록에 있는 책이나 자료를 모두 통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를 읽는 통독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는 발췌독을 하며 꼼꼼하게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찾아 비교하며 정보를 통합하여 읽는다(㉡).

07 (가)에서는 건축가가 하는 일과 건축가의 일반적 개념, 건축가가 지닐 역량 등에 대해 소개할 뿐, 건축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설계에 영감을 주는 사람, 직접 도면을 그리는 사람, 구조를 계산하고 다른 시스템과 결합하는 사람'에서 건축가가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③ 건축가가 건축주인 경우도 있으며, 건축가가 건축주의 의뢰를 받기도 함을 밝히고 있다. 즉 건축가와 건축주가 동일 관계일 수도 있고, 의뢰받은 사람과 의뢰한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다.

④ 건축가의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 시대의 환경을 담은 무언가를 아름답게 창조하되 여기에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건축할 때 고려할 요소로 '사회와 시대의 요청, 건축주의 요구, 대지와 자연환경이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08 선정한 글이나 자료를 꼼꼼히 읽을 때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인지 판단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보기>는 글을 통해 관심 분야인 건축가가 지녀야 할 역량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09 중심 화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나)는 과거 건축에 비해 현대 건축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하면서 현대 건축가가 지녀야 할 자세를 밝히고 있다.

10 (나)에서 글쓴이는 과거의 건축이 수직적 구조의 디자인 시스템이었다면, 21세기 건축에서는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해서 획적이고 복합적인 디자인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11 (나)에서는 과거 건축과 현대 건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현대 건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다)는 아파트와 땅콩집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땅콩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2 (나)는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고, (다)에서는 앞으로의 건축가가 지닐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를 통합하기 위한 제목으로는 '건축가가 지켜야 할 자세'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③, ④ (나)의 내용에만 해당한다.

⑤ (다)의 내용에만 해당한다.

13 진로 독서에 필요한 글이나 자료를 읽은 후 유의미한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때에는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구성해야 한다.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라도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은 구성 내용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가)는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 (나)는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 (다)는 미래의 건축가가 지녀야 할 자세 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건축가가 지녀야 할 역량과 자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거품

01 ⑤ 02 ② 03 ④

01 (나)는 현대 건축이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과거 건축이 수직적 구조의 디자인 시스템이었다면, 현대 건축은 획적이고 복합적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에서도 땅콩집은 아파트에 비해 삶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가)와 달리 두 대상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건축주는 개인이거나 기업, 공공 단체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에서는 21세기 건축의 특징으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분야가 재배치되고 분야 간에 협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행복한 집에는 삶의 추억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땅콩집을 예로 들어 앞으로의 건축은 실용보다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④ (가)는 건축가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02 (가)에서 건축가는 사회와 시대, 건축주, 대지와 자연 환경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건축가는 자신의 창작 의지, 철학, 사상, 기술, 아이디어, 영감 등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가는 자기 주관을 배제하고 건축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가)는 건축가가 창작 의지를 더하고 건축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고, (다)는 건축가가 건축물에 실용보다 가치를 담아내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03 (가)는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나)는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를, (다)는 미래의 건축가가 지녀야 할 자세 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건

축가'로서 지녀야 할 '역량과 자세'라는 내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표제와 부제는 ④이다.

(2)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74~77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⑤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② 10 ① 11 ①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동료 연구자인 할러데이 교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특정한 경험을 통해 불편한 심정을 느꼈던 것은 글쓴이 자신이 아니라 할러데이 교수이다.
- 02 한국인이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고 여긴 것은 글쓴이가 아니라 할러데이 교수이다.
- 03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②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한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③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 즉 외모를 가지고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④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 중 하나로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04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국어 책자를 집고 싶었지만,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는 내국인용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어서 집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05 글쓴이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은,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담을 전해 듣고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이 외국인에게는 색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 06 글쓴이는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이 언급하며 안내 책자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표기 언어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07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한 방식에 담긴 의도를 추론하며 나름대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08 글쓴이는 사용자가 한국어가 편한 내국인이거나 영어가 편한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한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내국인, 한국어가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내국인,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 한국어에 익숙해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외국인은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09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 측에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외국인은 이럴 것이라는 편견을 지닌 공급자의 관점만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분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10 글쓴이는 다양한 인종, 문화, 가치관 등을 '다양한 색깔'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1 글쓴이는 '현실화된 대한민국의 준비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은 누구인지, 또 외국인은 누구인지를 묻고, 그 물음에 떠오르는 다양한 답을 하나하나 새로운 관점으로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78~79쪽

01 ④ 02 ① 03 ⑤ 04 북한 이탈 주민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오해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05 ④

- 01 관광 안내소에서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안내 책자를 구분하여 비치한 것은 사용자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공급자의 관점만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02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한 것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공급자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보고,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소외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 03 글쓴이가 우리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와 같은 국제어의 사용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② 글쓴이는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글쓴이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정 관념을 지적하며 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④ 글쓴이는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04 ㉠의 북한어 '일없습니다.'는 '괜찮습니다. 유념치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의 북한어 '일없습니다.'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말의 '일없다'는 대개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북한 이탈리아 주민의 '일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05 <보기>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의사가 소년의 어머니라고 선뜻 대답하지 않은 것은 외과 의사는 당연히 남성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과 관련하여 남녀의 성 역할을 구분 짓는 고정 관념이 언어에 반영된 현상에 해당한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80~81쪽

01 ① **02** ⑤ **03** ㉢ 국적, ㉡ 언어 **04** 외모를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05** ④ **06** ③ **07**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외형적 특징만으로 외국인으로 치부하는 경우, 한국어가 서툴고 말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전 국적이나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01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가 관광 안내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듣고,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라)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느낀 문제의식을 부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할러데이 교수의 경험담을 듣고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④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편견에 대한 할러데이 교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⑤ 할러데이 교수가 관광 안내소에서 봤던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의 문제점을 글쓴이가 분석하고 있다.

02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 관념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 자신이 한국인들에 대한 배정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

03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가 외국인인 자신은 내국인용에 진열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집을 수 없었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구분 방식이 낯설고 이상해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이 있을 수 있고,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4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외모를 가고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안다.',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와 같은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해야 하며, 그 색깔들이 서로 조화롭게 빛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자세를 갖추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06 글쓴이가 언급한 '외국인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몰라서 영어로 쓰인 외국인용 표지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와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 외국인 중에서 영어로 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된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7 글쓴이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외형적 특징만으로 상대를 외국인으로 치부하는 경우이다. 둘째, 한국어가 서툴고 말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셋째, 그 사람의 이전 국적이나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82~85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해설 참조 **06** ③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해설 참조

01 진로 독서를 할 때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모든 매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문자 매체뿐 아니라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읽는 통독보다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정하여 꼼꼼하게 읽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02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기 위해 책이나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은 자료, 주어진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자료, 화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필수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03 (나)에서는 과거 건축과 현대 건축의 차이점을 언급한 후, 현대 건축이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다른 분야와 협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건축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건축가라는 핵심어의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건축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후, '다시 말해'라고 하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과거 건축과 현대 건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건축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 땅콩집의 사례를 들어 집에 추억과 같은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04 (가)에서는 건축가가 하는 일과 역할,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회와 시대의 요청, 건축주의 요청, 자연환경의 요구에 건축가 자신의 창작 의지와 철학, 사상, 기술, 아이디어, 영감을 더해 건축을 한다고 하였다. 즉 건축주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건축가 자신의 생각도 중시하며 건축을 하는 것이다.

1등급 서술형

05 | 예시 답 | 건축가는 창작 의지에 건축과 관련된 요구를 조율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건축에 가치를 담아내는 역량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보기〉는 건축과 관련한 자료에서 읽기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정한 것이다. (가)는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능력), (나)에서는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 (다)에서는 미래 건축가의 조건과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다)의 핵심 내용을 통합하여 '건축가의 역량과 자세'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가)~(다)의 핵심 내용을 통합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6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할러데이 교수와 나누는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대화 형식을 통해 글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⑤ 동료 연구자인 할러데이 교수가 겪은 경험담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깨닫게 된 글쓴이의 성찰을 소개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7 ㉠ 할러데이 교수는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만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할러데이 교수는 그 사람의 외형적 특징, 즉 외모로 상대가 외국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할러데이 교수는 국적이라는 단일한 기준이 한 개인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08 할러데이 교수는 '외국인' 판단 여부에 대한 한국인의 몇 가지 고정 관념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외모가 한국인과 다른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 관념에 해당한다.

09 (가)는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는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다)는 특정 요일에 대한 문화가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가)의 글쓴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활짝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의 외형적 특징이나 언어, 국적 등을 기준으로 상대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편견을 지니는 고정 관념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1 〈보기〉는 타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 또는 배려가 타자에게 오히려 차별 대우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인 자신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 외국인을 나와 다르다고 규정하고 그들에

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12 (다)는 '목요일'의 사례를 통해 파키스탄 학생들은 한국, 중국, 미국의 학생들과 달리 '목요일'을 주말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까지 알아야 하며, 다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1등급 서술형

- 13 | 예시 답 |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반영한 공급자 중심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안내 책자를 분류한 방식은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공급자의 관점만 반영하여 분류한 방식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문제점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5
	'선입견'이라는 단어는 포함하였으나,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소외감'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3 바르고 슬기로운 우리말 사용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89~95쪽

01 ⑤ 02 ③ 03 ② 04 밥물, 쫓는, 왕릉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② 11 (1) [파치다] (2) [소치나]

12 ④ 13 ① 14 ③ 15 · 표기: 넣어, 빨아서 · 발음: [너어], [빠아서]

16 (1) [오라서] (2) [끄르니] (3) [점:자느] 17 ① 18 ②

19 ④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1) [물녀] (2) [솔님] (3) [불녀우]

25 ④ 26 ④ 27 ⑤

- 01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 03 '옷'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앞 형태소의 받침을 그대로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에 [오시]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받침 'ㅅ'이 음절의 종성에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오는 경우는 [치]으로 발음된다. 이때는 [치]으로 발음된 후 받침이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된다.
 ① 옷[오], ③ 옷 위[오위], ④ 옷 안[오단], ⑤ 옷 옆[오옆]
- 04 '밥물[밤물]', '쫓는[죃느]', '왕릉[왕능]'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 오답 풀이 | '굳이[구지]'는 구개음화가, '난로[날:로]'와 '광한루[광:할루]'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 05 찰나[찰라]는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로 바뀐 것으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국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③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압날 → 암날]로 발음된다.
 ④ '꽃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꼇망울 → 꼇망울]로 발음된다.
 ⑤ '잡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나 [잡는다]로 발음된다.
- 06 '부엌[부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마당[압마당 → 암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대관령[대:괘령]'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 07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감기다'는 [감기다]로 발음해야 한다.

- 08 ‘옆집’은 [엿집]으로 발음된다. 받침 ‘ㅍ’은 음절의 끝에서 [ㅂ]으로 발음되고, ‘ㅂ’ 뒤 ‘ㅈ’은 된소리 [ㅉ]으로 발음된다.
- 09 구개음화는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10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 ‘맡이’는 [마디 → 마지]로 ㉡ ‘해돋이’는 [해도디 → 해도지]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잔디’는 받침 ‘ㄷ’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난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곧이어’는 받침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디어]로 발음된다.
- 11 ‘팔이다, 솔이냐’는 모두 구개음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들로,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파치다], [소치냐]로 발음된다. (1) 팔이다[파티다 → 파치다] (2) 솔이냐[소티냐 → 소치냐]
- 12 교체의 음운 변동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있다.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나타나며, 한 형태소 내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견디다’를 [견디다]로 발음하는 것은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닭장[닥짱]’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② ‘선로[설로]’는 유음화, ③ ‘미달이[미:다지]’는 구개음화, ⑤ ‘웃맵시[온맵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13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연음되어 발음하므로 ‘꽃이’는 [꼬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② ‘신겼다’는 [신결다 → 신결따]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입는다’는 [입는다]로 발음되어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밭이’는 [바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칼날’은 [칼랄]로 발음되어 유음화가 일어난다.
- 14 <보기>는 ‘ㅎ’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철학’은 용언이 아닌 체언이기 때문에 <보기>에 해당하는 ‘ㅎ’ 탈락의 조건과 무관하며 [철학]으로 발음된다.
- 15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ㅎ’이 탈락하므로, ‘넣-+-어’는 ‘넣어[너어]’로, ‘뺑-+-아서’는 ‘뺑아서[빠아서]’로 발음된다.
- 16 (1)의 ‘옮아서’, (2)의 ‘끓으니’, (3)의 ‘점잖은’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ㅎ’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로 그

결과 [오라서], [끄르니], [점:자는]으로 발음된다.

- 17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ㄹ’은 일반적으로 [ㄱ]으로 발음되지만, ‘ㄱ’ 앞에서는 ‘ㄱ’이 탈락하여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맑다’는 [막따]로, ‘밭고’는 [밭꼬]로 발음된다.
- 18 ‘뭉고’는 <보기>에서 제시한,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이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예이다. 따라서 [물꼬]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④ ‘흙과[흑꽈]’의 경우 ‘흙’은 체언이기 때문에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 ‘옮지’는 [읍찌]로 발음된다. 겹받침 ‘ㅃ’은 앞이 아닌 뒤의 자음이 소리난다.
|오답 풀이| ① ‘맑다[담:따]’의 ‘ㅃ’은 [ㅍ]으로 발음된다.
 ② ‘밭기[밭끼]’, ③ ‘읽고[일꼬]’의 ‘ㄹ’은 대부분 [ㄱ]으로 발음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⑤ ‘짧다[짤따]’의 ‘ㅃ’은 대부분 [ㄹ]로 발음된다.
- 20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음운 변동 중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좋은[조은]’은 ‘ㅎ’이 탈락한 것이고, ‘값[갑]’은 자음군 단순화로 겹받침 중 ‘ㅅ’이 탈락한 것이고, ‘쓰-+-어[씨]’는 ‘ㄷ’가 탈락한 것으로, 모두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 21 반모음 첨가는 모음 ‘ㅣ’와 ‘ㅣ’, ‘ㅣ, ㄱ’와 ‘ㅣ’ 사이에서 반모음이 첨가되어 ‘ㄱ’이 ‘ㄴ’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① 반모음 첨가는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서만 나타나며,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② 반모음 첨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서 반모음 ‘ㅣ [j]’가 첨가되어 전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③ 반모음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들어오는 현상이다.
 ⑤ 반모음 첨가는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 22 반모음 첨가는 ‘ㅣ, ㄱ, ㄱ’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만 ‘어’가 [ㄴ]로 발음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세-’와 같이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3 ‘ㄴ’ 첨가는 파생어 또는 합성어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합성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4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ㄴ’ 첨가 후에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ㄴ’ 첨가가 적용된 [물냇], [술냇], [불너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5 요일의 명칭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요일’은 [그묘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금요일[금녕/그몹], ② 훌이불[훈니불], ③ 내복약[내:봉냇], ⑤ 나뭇잎[나문냇]으로 발음되며,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 26 용언의 어간 받침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어

미)와 만나면 연음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한다. 이는 ‘ㅎ’ 탈락 현상에 해당된다.

27 ‘높이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다. 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대로 연음되어 [노피다]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약혼[아곤], ② 국화[구과], ③ 급하다[그파다], ④ 낙하산[나카산]으로 발음되는데, 모두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96~97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1 ‘각하[가카]’는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업무[엄무]’는 비음화, ③ ‘여닫이[여:다지]’는 구개음화, ④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 ⑤ ‘마셨다[마 션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로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02 ‘밟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밟:는]이 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밟:는]으로 발음되므로, ‘굽는다[궁는다]’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겹받침 ‘ㅁ’은 대부분 [리]로 발음되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뎡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뎡문]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뎡문]으로 발음된다.

② ‘물엿’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가 일어나 [물넝]이 이 된 후, 유음화가 일어나 [물련]으로 발음된다.

③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가 일어나 [꼰닙]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꼰닙]으로 발음된다.

⑤ ‘굴히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치다]로 발음된다.

03 ‘밭을’은 [바틀]로 발음되는데, 받침 ‘ㅌ’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연음된 것으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여덟[여덧]’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② ‘같이[가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⑤ ‘합하여[하파여]’, ‘국화[구과]’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4 ‘홀이불’에서 ‘이불’은 조사나 접미사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의 받침 ‘ㅌ’이 ‘ㅊ’으로 바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훈니불 → 혼니불]로 발음된다.

05 ‘감기다’에 쓰인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감기고]로 발음해야 한다.

06 ‘듬직하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듬지카다]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폭발[폭뵐]’, ② ‘꽃이[꼬치]’, ④ ‘닭을[달글]’, ⑤ ‘월요일[워료일]’이 맞는 발음이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98~99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7 • 표준 발음: ㉠ [넉씨], ㉡ [갑쌀] • 이유: ㉠의 ‘넉이’와 ㉡의 ‘값을’은 각각 겹받침 ‘ㄱ’, ‘ㅁ’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된 경우로,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08 ④ 09 ⑤ 10 ⑤

01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들어오는 현상으로, 전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은 축약이다.

02 ‘옷 위가 [오위]로 발음되는 것은 형태소 내부뿐만 아니라 형태소 경계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됨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밭이’는 [바치]로 발음한다.

② ‘부엌에’는 [부어께]로 발음한다.

③ ‘꽃잎’은 [꼰닙], ‘꽃잎이’는 [꼰니피]로 발음한다.

④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한다.

03 비음화는 파찰음이 아닌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04 ‘신고’는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인 [ㄱ]으로 바뀌어 발음된 예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예로 알맞다.

| 오답 풀이 | ①, ⑤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ㅍ)’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05 구개음화는 원칙적으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꽃밭을’은 [꼰바츨]이 아니라 [꼰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06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겹받침에 따라 앞선 자음이 탈락하기도 하고 뒤의 자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날으니[나으니]’에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받침 ‘ㅎ’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 07** 표준 발음법 제14항은 겹받침의 발음에 관한 것으로, 겹받침 ‘ㄱ’이나 ‘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ㅅ’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넋’은 [넉씨]로, ‘값’은 [갑쓸]로 발음해야 한다.
- 08** ‘실내화’는 [실래화]로 발음한다. 이것은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⑤ ‘여덟이다[여덜비다]’는 겹받침의 두 번째 받침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연음에 해당하며,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 09** ‘금요일’은 합성어이고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ㅇ’인 경우이지만, 요일의 명칭에서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 [그모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표준 발음법 제22항은 반모음 첨가, 제29항은 ‘ㄴ’ 첨가와 관련된 규정이다.
 ② ‘기어’는 [기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미에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이므로 [기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숨이불’은 ‘숨+이불’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ㄴ’을 첨가하여 [숨:니불]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늑막염’은 ‘늑막+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따라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능망념]으로 발음해야 한다.
- 10**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거센소리되기는 두 자음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2) 대화의 원리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01~105쪽

01 ⑤ 02 ③ 03 질의 격률 04 ④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 공손성, ㉡ 체면 10 ③ 11 ⑤ 12 ① 13 ③

- 01** 대화의 화제와 관련하여 말하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화의 주도권과는 관련이 없다.
- 02** 채원은 경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경수는 계속 대화를 회피하여 협력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태도의 격률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하거나 장황하게 말하는 것으로, 채

원이 경수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한 것이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것과는 관련이 없다.

- 03** 지호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수정의 요구에 자신도 풀지 못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호는 풀이 과정을 알고 있다. 따라서 지호가 수정에게 한 말은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말이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한 말하기에 해당한다.
- 04** 미래는 소연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대화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는 양의 격률을 지킬 필요가 있다.
- 05** “솔직히 개 좀 별로지 않니?”라고 묻는 영희의 말에 도건은 “오늘 날씨 진짜 좋다.”와 같이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친구의 흥을 보고 싶지 않아 화제에서 벗어난 말을 한 것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 대화 함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건의 말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양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 06** 지애는 상대에게 ‘먹을까요?’라며 상대 높임법을 통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에 대한 특정한 호칭을 사용하여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07** 도형은 정훈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웹툰의 작가가 별로라고 말하면서 정훈과 자신의 취향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형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정훈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를 격률을 지켜 말할 필요가 있다.
- 08** 민서는 하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준의 상처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여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따라서 민서의 말은 하준과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한 말하기라고 보기 어렵다.
- 09** 공손성의 원리는 일정한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대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는 원리인 체면 유지의 원리와도 관련된다.
- 10**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려는 태도가 대화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체면을 지키려는 태도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어 대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11** 상대의 요청을 거절할 때는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은영 또한 재민의 거절에 대해 불쾌감을 표

현하지 않고 오히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재민의 체면을 지키려 노력 하였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켰다고 볼 수 있다.

12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다.

| 오답 풀이 | ②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언어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③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위해서는 지난날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계승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승해야 한다.

④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서는 과거에 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⑤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서는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13 ㉠에서 여학생이 “요즘 뭐 하고 지내?”, “밥은 먹었어?”라고 묻는데, 이에 대해 남학생은 “그냥...”, “응.”과 같이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 자세로,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전통적인 담화 관습을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06쪽

01 질의 격률 02 ④ 03 ④

01 재판장의 지적을 고려할 때, 윤주의 말은 진실되지 못한 말에 해당하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02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삼가라는 담화 관습이 반영된 속담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속담은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चुप्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②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③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는 상황이 어떻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여야 함을 이르는 속담이다.

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는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03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병어리 장갑’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엄지장갑’이나 ‘손모아장갑’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 풀이 | ① 동물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담긴 표현은 ‘애완동물’이다.

② ‘결정 장애’는 장애인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담긴 표현이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③ 차별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는 물론 차별 표현을 차별이 내포되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⑤ 차별 표현은 차별을 받는 대상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담화 관습 속에서 사용해 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차별 표현이라면 계승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바람직한 방향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07~108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연경은 상대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는 칭찬의 격률과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01 화자와 청자는 서로가 대화를 전개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 오답 풀이 | ②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화제와 관련하여 말하라는 것이다.

③ 질의 격률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근거가 불충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④ 태도의 격률은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피하라는 것이다.

⑤ 양의 격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다.

02 ㉠에서 ‘잘 잤니?’라는 질문에 ‘방금 일어나서 밥 먹었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화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한 것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에 위배된다.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려면 ‘응, 알람이 울릴 때까지 푹 잘 잤어.’와 같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답을 해야 한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① 양의 격률, “난 15살이야.” ㉠ 질의 격률, “네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이야.” ㉡ 태도의 격률, “미역국 양이 많지 않으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 ㉢ 관련성의 격률, “응, 알람이 울릴 때까지 푹 잘 잤어.”

03 범근의 발화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를 위반한 발화에 화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대화 참여자들이 협력의 원리를 준수할수록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② 청자는 화자가 협력의 원리를 어겼을 때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원리에 위배되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④ 화자는 협력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⑤ 범근이 지민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려면 '시험을 잘 보았다.' 또는 '못 보았다.'로 대답해야 한다.

04 민서의 말은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준의 상처를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칭찬의 격률을 어긴 무례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서의 말이 상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손성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위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공적 자아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유지되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하며,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적극적 체면은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소극적 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담과 강요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이다.

③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는 원리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상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상대의 체면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적극적 체면은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소극적 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담과 강요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이다.

06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게 담화 관습을 개선하고, 새로운 담화 관습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삼은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 따라 무조건 말을 아끼겠다는 것은 대화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07 재판장은 승준이 방청객도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정보를 말하고 있다고 여겨서 에이피티(APT) 공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승준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며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여겨서 한 말이다. 그런데 재판장은 재판의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

08 연경은 성준의 장점을 칭찬하고 조별 발표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성준의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칭찬의 격률과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09~113쪽

- 01 ① 02 ①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⑤
 09 ② 10 ② 11 ⑤ 12 ⑤ 13 ① 14 ① 15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⑤ 18 ① 19 ② 20 ② 21 ④ 22 ①
 23 ④ 24 해설 참조

01 '숲에[수페]'는 '숲'의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음운이 변하거나 탈락되는 등의 변동을 겪지 않았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물혀[무처]'는 'ㄷ'과 'ㅎ'이 결합하면서 [ㅌ]으로 발음되고, [ㅌ]이 'ㅣ'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ㅊ]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참고로,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용언 활용형의 '처'는 [치]로 발음하므로 '물혀'는 [무처]로 발음한다.

③ '밥물[밤물]'은 'ㅂ'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물질[물찹]'은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논리적[놀리적]'은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ㄴ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웃감'의 'ㅅ'은 [ㄷ]으로 소리가 바뀌어 [온깸]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②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7개이다.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④ '웃 위'는 [오뒤]로 발음된다.

⑤ '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온]으로 발음된다.

03 '문고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합성 명사에서 뒤 단어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문꼬리]로 발음해야 한다.

04 '공권력'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공뀐력]으로 발음되고,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에 의해 [공뀐녝]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일시[일씨]'는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난로[날로]'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ㄴ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얇는[알른]'은 'ㄴ, ㄹ' 뒤에 'ㄴ'이 결합할 때 'ㅎ'이 발음되

지 않아 [알느]이 되고,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굴나무[굴라무]’는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05 ‘물난리’는 비음 ‘ㄴ’이 ‘물’의 ‘ㄹ’과 ‘리’의 ‘ㄹ’의 영향으로 [물랄리]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달님’은 [달림]으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법학[법학]’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값도[갑도 → 갑또]’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달는[단느]’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날날이[날:나티 → 난:나치]’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6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말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마지]로 발음된다.

07 ‘달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다티다]로 바뀐 후, 다시 구개음화에 의해 [다치다]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햇살’은 합성 명사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해쌀]로 발음된다. 또한 ‘햇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헨쌀]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꼇입 → 꼇닙 → 꼇닙]으로 발음된다.

④ ‘부역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부억문 → 부영문]으로 발음된다.

⑤ ‘꽃다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꼇다발 → 꼇따발]로 발음된다.

08 ‘읽는다’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한 뒤, ‘ㄱ’이 비음화를 거쳐 [ㅇ]으로 발음되어 [잉는다]가 된다. 따라서 ‘읽는다’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한 자음군 단순화의 예시이다.

09 ‘좋다’가 [조:타]로 발음되는 것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서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교체가 아닌 축약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먹느’는 ‘ㄱ’이 인접해 있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되어 [멍느]으로 발음된다.

③ ‘쌍이다’는 ‘ㅎ’이 탈락하여 [쌍이다]로 발음된다.

④ ‘할 일’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나 [할닐 → 할릴]로 발음된다. 유음화의 경우 ‘할 일’처럼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곧이들다’에서 ‘곧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고지]가 되고, ‘들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들따]가 된다. ‘곧이’와 ‘들다’ 모두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10 ‘한여름’은 ‘ㄴ’이 첨가되어 [한너름]으로 발음되는데, ‘ㄴ’ 첨가

는 동일한 음운 환경이라고 해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금융[금녕/그똥]’은 ‘ㄴ’ 첨가가 적용된 발음과 그렇지 않은 발음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며, ‘금요일[그요일]’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11 ‘하양고’는 ‘ㅎ’이 뒤에 오는 ‘ㄱ’과 만나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어 [하야코]가 되는 순행적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나머지는 모두 ‘ㅎ’이 ‘ㄱ, ㄷ, ㅂ, ㅈ’ 뒤에 위치하는 역행적 거센소리되기이다.

12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ㅡ’가 탈락하므로, 어간 ‘크-’는 어미 ‘ㅣ’ 앞에서 ‘ㄴ’이 탈락한다. 이때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다.

13 ‘절약’은 ‘ㄴ’ 첨가가 없이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저략]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절약’을 [절략]으로 발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똥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똥따]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1등급 서·논·습형

15 | 예시 답 | ㉠ ‘침범’은 [침뺨]으로 발음하는데, 제11항에 따라 겹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하고, 제23항에 따라 받침 ‘ㄱ(ㄹ)’ 뒤에 연결되는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 ‘콩엿’은 [콩녘]으로 발음하는데, 제29항에 따라 합성어에서 뒤 단어의 첫음절이 ‘여’인 경우 ‘ㄴ’ 음을 첨가하여 [녀]로 발음하고, 제8항에 따라 받침소리 ‘ㅅ’은 [ㄷ]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 ‘침뺨’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자음군 단순화는 제11항에 따른 것으로,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된소리되기는 제23항에 따른 것으로, ‘ㄱ(ㄹ)’ 뒤에 연결되는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침뺨]이 된다.

㉣ ‘콩엿’은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ㄴ’ 첨가는 제29항을 따르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제8항에 따라 ‘ㅅ’을 [ㄷ]으로 발음하여 [콩녘]이 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과 ㉡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쓰고, 표준 발음법의 조항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과 ㉡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썼으나, 그 이유를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과 ㉡의 표준 발음만 정확하게 쓴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논·습형

16 | 예시 답 | 제24항에 따르면 “(신발을) 신다.”의 ‘신다’는 어간 받

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신:따]로 발음한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다.’에 쓰인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즉, 이에 따라 “(신발을) 신다.”의 ‘신다’는 [신:따]로 발음한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다’에서 쓰인 ‘-기-’는 사동 접미사로 이때 ‘ㄱ’은 어미의 첫소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표준 발음법 제24항과 ‘다만’ 규정을 활용하여 ‘신다’와 ‘신기다’에서 된소리되기 적용 여부 가 달라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3
	‘신다’와 ‘신기다’에서 된소리되기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17 공손성의 원리는 호칭이나 높임법처럼 일정한 언어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태도와도 관련된다. 말하기의 형식은 정중할지라도 화자의 태도가 정중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손성의 원리를 지켰다고 할 수 없다.
- 18 관련성의 격률은 화제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발표 주제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의 영화 이야기는 화제에서 벗어난 말이다. 따라서 ㉠이 관련성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은 말이다.
- 19 동의의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이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 20 민지는 첫 번째 발화에서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함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고 있다. 즉 지원의 말을 잘 못 들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고 있다.
- 21 민수의 “그만 물어봐. 나가 줘.”라는 말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표현이다. 관용의 격률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민수의 마지막 말은 관용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 22 차별 표현이란 특정 대상을 직간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언어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표현은 성과 신체에 관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성, 신체, 지역, 국적, 인종, 직업 등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차별받는 대

상이 존재하며, 차별적 인식이 드러난다.

- 23 ‘빠를 때리다.’는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콧 집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담화 관습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등급 서술형

- 24 | 예시 답 | 기범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켜 말하고 있지 않다. 강 코치가 자신의 농구 팀에 기범을 스카우트하려 하자,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기보다는 기범의 마지막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강 코치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강 코치가 자신의 농구 팀에 기범을 스카우트하려 하자, 기범은 “프로 2군 출신이라면서요. 코치 경력도 없고, 월급 100만 원이나 됩니까? 턱도 없지요? 지는 그런 삼류 아입니다. 판데 가서 알아 보이소.”라며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할 때는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되, 자신의 의사를 부드럽게 돌려 말하여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기범의 마지막 발화를 근거로 기범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서술한 경우	3
	기범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밝혔으나, 기범의 마지막 발화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4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힘

(1) 세상을 보는 눈, 논리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18~121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7 ① 08 ④
09 ③ 10 ② 11 ⑤

- 01**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가’라는 쟁점을 제시하고 그 쟁점에 대해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글쓴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02**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작용하던 연결망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 연결망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따르면, 초연결 사회는 지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② 글쓴이는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③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④ 초연결 사회에서의 연결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03** 이 글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논증 요소 중 ㉓는 주장에 해당하고, ㉒는 이유에 해당하며, ㉑는 근거에 해당한다. 이유는 근거와 함께 사용되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㉒는 이유로 ㉑의 사례를 근거로 ㉓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04** 이 글에서는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개념을 지닌 ‘동네 생활권’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동네 생활권이 의미하는 지역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5** ㉔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㉔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06** ㉔의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영향으로 이용자들은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보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하였다.
- 07** (마)의 마지막 문장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 08** ㉑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모임을 제안하고, 소소한 일상과 감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제시한 것이다. 즉 ㉑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㉑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관계 양상이 능동적인 것임을 근거로 ㉑을 반박하고 있다.
- 09** (바)에서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연결망이 동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며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글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10** ㉓에서는 초연결 사회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이 역설적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동네 생활권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㉓에서 ‘역설적이게도’라는 말을 사용한 까닭은 연결망이 확산되는 것과 세밀한 지역을 중시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논리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11**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㉒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제시해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22~123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 01**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형성한다고 하였다.
- 02** 5문단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역에서의 능동적 연결이 누적될수록 지역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일시적이라는 점은 반론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

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 부각의 토대가 되었다는 견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늘려 상호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성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초연결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가능함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04 <보기>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중고 거래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재구성한다면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논증 과정 등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4문단에서는 이유 없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4문단에 근거와 관련 있는 이유를 추가하면 논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24~125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초연결성은 지역민들의 상호 연결성을 높여 지역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만들 수 있다.

01 이 글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초연결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02 (다)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 있는 여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여러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거나 사례 간 공통점을 도출하여 일반화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초연결성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연결성을 높여 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초연결성은 지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는 초연결성의 토대가 있었기에 지역성이 부각되었을 것이라는 주관적 견해를 이유로 제시하고 그와 관련 있는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④ (라)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징을 제시하고 그 특징과 관련하여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초연결성에 의해 지역성이 소멸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근거

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03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개인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 구역상 동 단위보다 좁은 지역을 동네로 설정하여 세밀한 지역 단위로 운영된다.

04 <보기>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서가 아니라,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편리함과 연결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 글의 글쓴이에게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역성이 능동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된다고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물리적 근접성에 의한 것으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역성이 능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05 (라)에는 근거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유를 추가하여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라)에서 글쓴이는 지역민들의 상호 연결성 강화와 지역 가치 중시에 영향을 미치는 초연결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28~138쪽

- 01 ① 02 ⑤ 03 이유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④
- 0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부작용 15 ⑤ 16 ③
- 17 ④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④ 23 ④ 24 ⑤
- 25 ④ 26 ④ 27 ⑤ 28 ② 29 ③ 30 ⑤ 31 ④

01 정책 토론에서 찬성 측은 기존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게 되므로 찬성 측이 논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니게 된다.

02 문제가 심각하며,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음을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찬성 측이다.

03 제시된 논증 구성에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반납 기한을 어긴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으로 ‘대출 도서의 반납 기한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학교 도서관에서 ~54%나 되었습니다.’를 내세우고 있다.

04 토론 개요서의 논제로 보아 찬성 측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인한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05 반대 측이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을 구조적인 양극화로 인한 현상의 하나일 뿐이라고 한 것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06 찬성 1은 논제, 즉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아니라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③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나 이중적 의미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④ 찬성 1은 입론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백신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07 찬성 1은 논문을 근거로 삼아 국제 사회가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이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08 찬성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이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문제가 심각한가?',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 '해결 방안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주장을 펼칠 때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③ 찬성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의 가격이 낮아져 개발 도상국의 백신 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09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대 신문은 상대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논지의 반박을 위해 상대측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10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는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조사 시점이 △△ 바이러스가 막 확산하던 시점에 조사한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자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 ㉔는 상대측이 제기한 문제점, 즉 조사 시점이 △△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백신 양극화의 문제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2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양극화 현상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3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한다 해도 백신 생산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제약회사가 아니라면 여전히 백신 제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㉔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5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지식 재산권의 면제로 복제약의 대량 생산과 개발 도상국의 전염병 차단에 큰 성과가 있었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를 언급하여, 해결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반박하고 있다.

16 반대 1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찬성 측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 주목하여,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더라도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는 큰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여 큰 이익을 본 선진국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의 백신과 치료제 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와는 달리 전염병 백신의 복제약 생산은 훨씬 어렵고 까다롭다고 언급하고 있다.

17 토론을 할 때에는 양측이 쟁점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논리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8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로 논증을 구성하여 입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아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입론이 아니라 반론 단계에서 하게 된다.
- ② 찬성 측은 논제에 담긴 주장과 동일한 관점에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 ③ 입론은 반대 신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대 신문에 대응하기 위해 논증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
- ⑤ 첫 번째 입론에서 한 주장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고 있으나, 첫 번째 입론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19 찬성 2는 백신 하나에도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지, 입론에서 제시한 근거가 사실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반대 1은 △△ 바이러스의 백신의 일부 기술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찬성 2는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백신 하나에도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모두 면제된 것이 아닌데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공중 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례를 활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찬성 2는 폴리오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자신이 앞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 반대 2는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된다면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이 꺾일 뿐 아니라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백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21 반대 2는 입론에서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즉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이 꺾이고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어 백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㉞를 활용하고 있다.

23 근거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토론 참여자는 입론을 한 토론 참여자가 아니라 반대 신문을 하는 토론 참여자이다.

24 반대 1은 찬성 측의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작은 이유는 밝히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25 반론은 상대측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논증을 구성하여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 측이 반론 과정에서 반대 측 주장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선진국의 선의에 의존해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찬성 측이 주장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반박하고 있다.
- ② 반대 측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찬성 측의 주장을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연구자들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 ③ 찬성 측은 지식 재산권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돕도록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⑤ 찬성 측은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상되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26 ㉠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선진국의 입장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을 각각 제시하였지만, 백신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27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은 반대 측 제2 토론자가 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② 한 사람이 각각 한 번씩의 입론과 한 번씩의 반론을 하게 되므로 한 팀당 모두 두 번의 반론과 두 번의 입론 기회가 주어진다.
- ③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 반대 측부터 하게 된다.
- ④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입론의 발언 기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번갈아가면서 갖게 된다.

28 반대 1이 논제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 1은 승부에 집착했던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을 뿐, 이것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29 ③은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알 권리'라는 가치의 우열을 따지는 논제이므로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30 필수 쟁점 ③과 관련하여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이익을 제시하였으나, 이익을 비용에 대비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제시하여 필수 쟁점 ①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스위스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도보 위주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필수 쟁점 ②와 관련하여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④ ○○ 연구소의 보고서에 실린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여 케이블카 설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1 갈등 조정은 협상 담화에서 필요한 것이지, 토론 담화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 여부'는 토론 평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39~140쪽

01 ① 02 ③ 03 ①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②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백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③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04 ⑤ 05 ③ 06 • 주장: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 이유: 지식 재산권을 많이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크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근거: 의학 전문 잡지인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01 정책 논제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찬성 측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논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찬성 1이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이것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찬성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였을 뿐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기존 방식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야 논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⑤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게 되면 찬성 측 입장과 상충하게 된다.

02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백신 접종률 관련 자료의 조사 시점에 대해 묻고, 그 자료가 △△ 바이러스의 확산 초기에 조사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3 필수 쟁점 ①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②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③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와 관련된다.

04 반대 측은 ㉠이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 감소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이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으로 ㉠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05 찬성 1은 반대 측이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움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반대 1이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자 찬성 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지식 재산권 면제 사례를 제시하여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반증 사례를 제시할 거야.'가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06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반대 1이 구성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 주장: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 이유: 지식 재산권을 많이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크게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근거: 의학 전문 잡지인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41~145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④
08 ⑤ 09 ⑤ 10 해설 참조 11 ② 12 ①

01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 동네 생활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초연결성이 지역의 개념이 점점 더 넓은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초연결성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② (가)에서 초연결성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③ (나)에서 초연결성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다.

④ (가)에서 초연결성은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어 빅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2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연결망이 고도화되어 초연결성을 지나게 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지역성도 강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연결망이 고도화될수록 지역 내에서의 소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03 ㉠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에서는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밀한 지역 단위로 '한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04 ㉢은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제기하는 반론이고, ㉣은 그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이다. ㉢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지역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 반박하고 있다.

1등급 서논술형

05 | 예시 답 | 초연결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의 특색과 가치가 널리 공유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지역에 방문해 지역의 문화를 즐기고, 그 경험을 다시 초연결망을 통해 널리 전파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제시된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진술 형식을 지켜 근거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제시된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진술 형식을 지켰으나, 근거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진술 형식은 지켰으나, 제시된 단어를 포함하지 못한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6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지역 축제의 관람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규모 확대보다 축제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에서 축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제시된 관점은 축제의 내실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내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축제 내용의 부실함을 근거로 축제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의 쟁점으로 보아 관람객 수 감소가 문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근거로 축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07 이 토론의 논제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로, 어떤 현안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혀야 하는 정책 논제이다.

08 [D]에서 반대 2는 찬성 측이 제기한 예외 규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즉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언급하여 찬성 측 입장을 보강하였다.

② [B]에서 반대 1은 '△△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가 지식 재산권 면제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③ [C]에서 반대 2는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된다면,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이 꺾일 뿐 아니라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어 오히려 백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초래할 부작용을 제시하였다.

④ [D]에서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09 [B]에서 '△△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반대 1의 질문에 대해 찬성 2는 지식 재산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폴리오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1등급 서논술형

10 | 예시 답 | ㉠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경우 백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 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논증 요소와 관련지어 ㉠이 활용된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의 활용 방안을 서술하였으나, 주장, 근거 등 논증의 구성 요소와 관련지은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주장, 근거 등 논증의 구성 요소와 관련 없이 ㉠의 활용 방안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1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개발 도상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 2가 근거 자료로 준비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며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찬성 측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하면서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의욕과 동기를 잃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전염병과 같은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보려는 시각을 넘어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 반대 측은 선진국의 선의에 의존해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찬성 측은 선진국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표현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50~15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우리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④ 15 ② 16 ① 17 ① 18 (1) 물고기가 형에게 잡혔다. (2) 그 집이 사람들에게(사람들에 의해) 헐렸다. 19 ⑤ 20 ⑤ 21 ② 22 철회는 자기가 먼저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23 ④ 24 ② 25 ③ 26 ③ 27 ③

01 문법 요소와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글과 담화의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데, 어느 하나가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어휘의 선택에 따라 담화의 표현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③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이 있다.

④ 대화 참여자는 격식성, 상대와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관계에 따라 언어 표현을 달리 사용해야 한다.

⑤ 다양한 글과 담화에 사용하는 문법 요소와 어휘는 글쓴이나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언어 요소들이다.

02 '선생님'은 '학생'에게 높임의 대상인 '국어 선생님'의 행위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들어 가셨는데'라고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의 대화 상대는 학생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선생님'이다.

② 학생은 특수 어휘인 '계시다', '여쭙다'를 활용하여 '국어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학생'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선생님'에 대해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⑤ '선생님'은 '학생'에게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해라체(아주 낮춤)를, '학생'은 '선생님'께 종결 어미 '-ㅁ니다', '-습니다'를 사용하여 하십시오체(아주 높임)를 사용하였다.

03 ⑤의 '시작되었나요?'는 해요체이므로 두루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요'는 해요체로 두루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② '시작해'는 해체로 두루 낮춤 표현에 해당한다.

③ '하겠나?'는 하계체로 예사 낮춤 표현에 해당한다.

④ '시작하겠습니다'는 하십시오체로 아주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 04 ④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무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05 '아드님'은 문장의 주체인 '우리 선생님'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아드님'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따라서 '있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고쳐 써야 한다.
- 06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나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현한다. 객체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 07 ③은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②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④ 부사격 조사 '께'와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⑤ 부사격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부사어인 '큰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 08 선어말 어미 '-는-/~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용법으로도 사용되지만,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같은 다양한 표현 의도를 나타내거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면 미래 시제이다.
 ②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았-/~었-', 부사어 '어제', '이미', 선어말 어미 '-더-'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③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지만, '-(으)ㄴ 것이-'처럼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 09 ③은 '걸다'에 선어말 어미 '-었-'과 '-더-'를 사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재 시제, ② 미래 시제, ④ 미래 시제, ⑤ 미래 시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10 ③ '하겠다'의 '-겠-'은 이루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⑥ '풀겠다'의 '-겠-'은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낸다.
- 11 ④에서 '바쁘다'는 형용사로,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③, 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이다.
- 12 ②는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을 사용하여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 13 ④의 '갈 것이다'는 '-ㄴ 것이-'를 통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부사어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기본형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탄다'에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마신다'에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사어 '지금'은 '말하는 바로 이때에'라는 뜻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 '먹고 있다'는 현재의 동작상을 나타낸 표현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4 피동문의 주어는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온다.
- 15 ②의 '주었다'는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능동 표현이고, 나머지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이루어졌다'는 '이루다'의 어간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③ '팔렸다'는 '팔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④ '사용되었다'는 명사 '사용'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⑤ '강요받았다'는 명사 '강요'에 피동 접미사 '-받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 16 '뿔혔다'는 '뿔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적 피동문이다.
|오답 풀이| ② '깨졌다'는 '깨다'의 어간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③ '만들어졌다'는 '만들다'의 어간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④ '버려진'은 '버리다'의 어간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⑤ '베어졌다'는 '베다'의 어간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 17 ①의 '안졌다'는 '안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

된 것으로, 주어인 '아기가'의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다. 피동 표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풀려졌다'는 '풀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고,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찢겨졌다'는 '찢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고,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나뉘어진다'는 '나누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고,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생각되어지지는' '생각'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되고,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18 (1)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잡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물고기가 형에게 잡혔다.'로 바꾼다.

(2)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헐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그 집이 사람들에게(사람들에 의해) 헐렸다.'로 바꾼다.

19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하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20 ⑤는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인용격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를 붙여 '우리는 그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로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간접 인용으로,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하고 있다.

③ 직접 인용으로, 물음표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여 표현하고 있다.

21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인용된 말이나 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인용된 말이나 글의 핵심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③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은 모두 인용된 내용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④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여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⑤ 화자의 관점에서 인용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또한 간접 인용은 원래의 말이나 글의 표현이 화자의 관점에 맞게 달라지지만, 내용이 변형되지는 않는다.

22 간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며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큰따옴표를 없애고, '내가'를 '자기가'로,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고쳐 써야 한다.

23 ㉠에서 (가)는 화자가 격식성이 드러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담화 상황이 공식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24 ㉠에서 화자의 태도나 심리가 '변명'과 '설명'이라는 어휘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담화의 공식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화자의 태도나 심리가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전달하려는 상황 자체는 같다.

③, ⑤ '설명'에 비해 '변명'에는 그의 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판단 및 태도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④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드러낼 수 있다.

25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는 사고 도구어나 전문어는 정교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 두루 활용되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26 한자어인 ㉠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고유어인 ㉡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과 같은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들이다.

② ㉡는 일상에서 두루 사용되는 고유어이다.

④ 학술적인 글에서 정교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⑤ ㉠은 학문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이고, ㉡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고유어이다.

27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 상황은 특정 분야 안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인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세밀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58~159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벤야민은 19세기만큼 주거 중독증이 나타난 시대도 없었다고 진단한다. 07 ②

01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것은 주체 높임이 아니라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타난다.

02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고, ㉡는 부사격 조사 '께'와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둘 다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다'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③ 주체 높임법 중 ㉡에는 간접 높임 표현이, ㉠에는 직접 높

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㉔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⑤ ㉔에는 조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한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3 '-았-/—었-'은 보통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㉔에서는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미리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는 모두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4 ㉔의 '내리고 있다'는 '-고 있다'를 통해 비가 내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작의 진행을 드러내는 시간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읽은'에서 '-니'를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이루어질 것이다'에서 '-르 것이-'를 통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않았었다'에서 '-았었-'을 통해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면서 현재와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입을'에서 '-(으)르'를 통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5 '달혀진다'는 '달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되고,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검겨되었다'는 '검겨'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③ '답겼다'는 '답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④ '불린다'는 '부르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⑤ '지워지지'는 '지우다'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다.

06 큰따옴표와 문장 부호를 삭제하고, 인용격 조사를 '라고'에서 '고'로 바꾼다.

07 '갈라지다'는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㉔의 문장은 우리말 표현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이미'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인데, '시작될 것이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③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인용격 조사는 '고'를 붙여야 한다.

④ '상품'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품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⑤ '자다'는 주체 높임을 표현할 때는 '자다'가 아니라 특수 어휘인 '주무시다'로 써야 한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60~161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 고친 표현: 이 책이 최근에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 고친 이유: '읽혀진'은 '읽히다'라는 피동사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그녀는 어제 나에게 오늘 만나자고 말했다. **12** ④

01 ④에서 '찾아가겠습니다'는 상대 높임 중에서 '하십시오체'이므로 아주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해라체(아주 낮춤), ② 해체(두루 낮춤), ③ 하계체(예사 낮춤), ⑤ 해요체(두루 높임)에 해당한다.

02 ③은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주무시다', '계시다'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㉔는 실현되었지만,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병원에 계시는'은 안긴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가 생략된 것이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또 특수 어휘 '뵙다'는 안은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② '고모네 가지겠다'는 안긴문장의 주체인 '할머니'가 생략된 것이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또 특수 어휘 '모시다'는 안은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④ 특수 어휘 '뵙다'는 문장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㉔이 실현되었고, '가셨다'는 '가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이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⑤ 조사 '께서'와 '필요하신'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 있으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또 특수 어휘 '여쭙다'는 문장의 객체인 '삼촌'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03 ③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사물을 존대하는 지나친 높임 표현이므로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와 같이 고친다.

② '너'가 아니라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오시래'를 '오라서'로 고쳐야 한다.

④ '할머니'를 높여야 하므로 '할머니에게'를 '할머니께'로 고쳐야 한다.

⑤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 물어보래요'를 '여쭙보래요'로 고쳐야 한다.

04 ④에서 '글렀다'의 '-었-'은 발화사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의 '-었-'은 모두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05 <보기>의 밑줄 친 말의 선어말 어미 ‘-겠-’은 공부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06 ④의 ‘본’에 사용된 ‘-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돌아오는 주말’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
 ③ 과학적인 보편적 진리를 표현한다.
 ⑤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ㄴ-’을 사용하고 있다.
- 07 ㉠은 부사격 조사 ‘-에게’를 넣어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그에 대한 오해가 영희에게 풀렸다.’는 어색하므로 ‘-에 의해’를 사용해 ‘그에 대한 오해가 영희에 의해 풀렸다.’와 같은 피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 08 ‘읽혀진’은 ‘읽다’의 어간 ‘읽-’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읽힌’으로 고쳐야 한다.
- 09 ⑤의 ‘밑져지지는’ ‘밑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다.
- 10 직접 인용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고,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11 ‘그녀’가 발화한 시점은 ‘어제’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내일’은 ‘오늘’로 바꾸고, ‘만나오는’ ‘그녀’가 ‘나’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청유형 문장인 ‘만나자’로 바꾸면서 문장 부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인용격 조사를 ‘라고’에서 ‘고’로 바꿔야 한다.
- 12 ㉠~㉢와 같은 사고 도구어들은 고유어보다 정교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고유어로 바꾸었을 경우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 전달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매체를 활용한 세상 보기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63~170쪽

01 ⑤ 02 ② 03 설득 04 ④ 05 ④ 06 ㉠ 통념, ㉡ 긍정적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⑤ 12 ④ 13 ① 14 ⑤
 15 ① 16 ③ 17 ⑤ 18 (가)는 동물원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내부 자료만을, (나)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지는 특정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정성이 부족하다. 19 ② 20 ④ 21 ②
 22 ② 23 ⑤

01 지구 온난화로 국산 열대 과일이 출하된 것에 대해 ㉠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다른 것은 생산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사의 제목, 본문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02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므로 인쇄 매체보다 전달 범위가 넓고 전달 속도가 빨라 소통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매체를 제작하고 전달할 때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03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캠페인 자료는 학생들에게 탄소 중립 실천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 04 (가)의 기사는 ○○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과 희귀종 보전에 주력하여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의 순기능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05 사진에 ‘○○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의 외출’이라고 한 설명은 ○○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판다가 태어나 서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뿐, 동물원의 희귀종 보전 행사가 정례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06 ㉠은 동물원이 생태학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번식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앞 문장에 ‘흔히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다.’고 밝혀 동물원에 대한 통념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 동물원이 생태 보전을 위해 하는 일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동물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07 동물원은 동물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동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해당한다. (가)의 기사에서는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번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8 (가)의 기사에는 동물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외부 기관의 검증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 등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세상에 동물원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하였다.

② 흔히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③ 멸종 위기종 번식을 위해 ○○ 동물원은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동물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호르몬을 분석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⑤ 야생과 유사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 흙, 나무, 풀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

며, 야행성 동물을 위한 야간 활동 방사장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09 신문 기사는 정보 제공자가 기자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일방향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10 (나)는 남방큰돌고래와 관련해 이들의 생태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다. 이러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시청각 자료 형태로 수용자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문자를 중심으로 소통한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⑥은 남방큰돌고래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장면을 제시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⑤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①에서는 매체 생산자가 남방큰돌고래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② ②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후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③에서는 동물원이 돌고래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⑤에서는 ④에서 언급한 생태 법인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2 ④의 '개울가'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매체 생산자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말을 하고 있다. 전문가가 언급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①의 '달보드레'는 오늘 방송이 '남방큰돌고래'에 관한 내용이라며 매체 생산자가 제시한 화제를 확인하고 있다.

② ②의 '고양이'는 수족관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③ ②의 '꼬리별'은 동물원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체 생산자의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⑤ ④의 '알사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남방큰돌고래의 법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13 '버드나무'는 '볼꽃놀이'가 검색한 자료의 출처를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4 (나)를 제작한 생산자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지정하여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

적 가치가 높은 동물을 동물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은 (나)를 제작한 생산자의 관점과 다르다.

15 (가)는 인간이 개입하여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관점이다. (나)는 동물원이 동물을 감금하여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므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결국 동물원을 중심으로 동물의 생활에 인간의 개입이 적절한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6 카드 뉴스에서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카드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원은 동물원 등록제로 인해 동물들이 습성에 맞지 않는 서식 환경에서 지내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동물원 허가제이다.

17 카드 뉴스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 등록제에서는 동물들이 지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한 동물원 허가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카드 뉴스의 제작 목적은 ⑤가 가장 적절하다.

18 <보기>에 따르면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나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 평가라고 하였다. (가)는 동물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내부 자료만을, (나)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자는 특정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한쪽 의견에 치우침이 있으므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9 ②에서 동물원이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다는 것은 동물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으로, 동물원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관점과 다르다.

20 (가)는 신문 기사,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해당한다. (가)는 한번 인쇄되어 배포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나)는 매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비교적 제한이 없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나)에 비해 (가)는 수용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② 인터넷을 매개로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나)에 비해 (가)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느린 편이다.

③ (가)는 기사를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구하기 어렵고, 실시간 소통도 어렵다.

⑤ 기자가 주로 쓰는 (가)에 비해 (나)는 정보 생산자의 자적

이나 요건 등에 제한이 없다.

- 21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에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
- 22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특정한 관점과 의도가 담길 수 있으며,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3 ⑤는 예상 수용자인 학생들이 전문적인 경제 용어의 개념을 잘 모르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고 말하고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171~172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6 ④ 07 돌고래 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했으나, 그 출처나 조사 기관 등을 언급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

01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게시물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전달 범위가 넓고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의 게시물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로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에는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람의 특정한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은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개인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④ 예상되는 수용자가 누구인지, 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통에 적합한 매체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02 ㉠은 제시된 정보나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일로, 신뢰성 판단에 해당한다. ㉡에서는 ○○천을 살려야 하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 등이 믿을 만한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신뢰성 판단을 위한 검토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공정성, ②는 타당성, ④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③ ○○천을 살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나 효과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은 신뢰성과는 관련이 없다.

03 ③은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이 학생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목적에 해당한다.

04 (가)는 신문 기사,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는 점에서

(나)가 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가)는 동물원의 순기능을 알리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나)는 남방큰돌고래가 주체적으로 살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05 (가)에서 '○○ 동물원'이라고 밝힌 것은 기사에서 소개하려는 구체적 대상을 제시한 것이지만, 본문에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06 ④는 '제돌이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산자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체 생산자의 의견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①에 제시된 링크는 남방큰돌고래 외에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 생물종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② ②는 돌고래 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③ ③은 수족관 환경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적절하지 않음을 언급하는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 생산자의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나) 방송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다.

07 (나)에서 돌고래 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했으나 그 부정적인 여론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출처나 조사 기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뢰성은 매체 자료에 제시된 정보나 자료 등이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73~176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④ 10 ⑤ 11 해설 참조 12 해설 참조 13 해설 참조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해설 참조

01 대화 상대인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상대 높임으로, 종결 어미로 나타난다. 상대 높임 중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오체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하계체, 해라체, 해체는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다. ⑤의 '가야겠다'는 상대 높임법의 해라체로, 듣는 이가 자신과 나이나 지위가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낮을 때 아주 낮추어 말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버니다'는 상대 높임법의 하십시오체로,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표현이다.

② '-구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로,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예사 높임 표현이다.

④ '-요'는 상대 높임법의 해오체로, 비격식적 상황에서 상대방을 두루 높이는 표현이다.

02 ㄴ은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고 있으며,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ㄱ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였다.

③ ㄷ은 문장의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④, ⑤ ㄹ은 안긴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사용했고, 안은문장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했다. 따라서 ㄹ에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모두 실현되었다.

03 '이 상품'은 높임의 대상인 '고객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간접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04 ㉗의 '하는'에서 '-는'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ㄱ). 그리고 ㉘의 '듣는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㉙의 '예쁘다'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ㄴ).

|오답 풀이| ㄴ. ㉙의 문장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피어나는'과 '예쁘다'이다.

ㄷ. ㉘에만 '이제 막'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나온다.

05 ⑤의 '얼 것'은 '-ㄹ 것'을 사용해 미래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선어말 어미 '-겠'이 ①에서는 현재의 사건 추측, ②, ③은 가능성의 의미, ④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06 ③은 피곤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미래에 벌어질 일인 '등산'을 가기 어렵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때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해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07 ㉑의 '대학생이다'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있고, ㉒의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표현한다.

|오답 풀이| ② ㉓은 현재 시제가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낸다. 현재 시제가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로는 '지구'는 돈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③ ㉔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지만, ㉔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과거 시제이다.

④ ㉕은 선어말 어미 '-더-'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므로, ㉕에 '지금'을 넣으면 과거 시제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⑤ ㉖은 선어말 어미 '-겠-'이 '꼭'이라는 부사와 함께 쓰여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08 <보기>는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줍히다'는 '줍다'의 사동 표현으로 주어와 동사를 제함으로 하므로 피동 표현이 아

니다.

09 '버리다'는 타동사로, 어간에 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이 아니다. '버려진다'는 어간 '버리-'에 '-어지다'만 결합된 피동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버린다.'가 되므로 '반려동물'은 목적어로 바뀐다.

② '지속'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것이다.

③ 능동문으로 바꾸면 피동 표현에서 생략된 주어인 '사람들이'가 나타난다.

⑤ '버려진다'는 피동 표현으로, 생략된 주체인 '사람들'에 의해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행위를 당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0 인용된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경우 "이러한 결과가 선수의 엄청난 노력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결 표현이 달라진다.

1등급 서술형

11 **|예시 답|** 부사어 '지금'과 '떠가다'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고, '보고 있다'에서 '-고 있다'를 사용해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부사어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고 있다'를 사용해 진행상을 표현했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5
	부사어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고 있다'를 사용해 진행상을 표현했다는 내용을 서술했으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술형

12 **|예시 답|** •이유: '보여지다'는 능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아-'가 결합한 후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덧붙은 이중 피동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표현: 방향을 맞아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이유를 밝히고, 바르게 고쳐 쓴 경우	5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이유를 밝혔으나, 바르게 고쳐 쓰지 못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등급 서술형

13 **|예시 답|** •간접 인용 표현: 선생님께서 길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게 위험하니깐 선생님께서 계신 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 **높임 표현의 용법:** '선생님께서서'에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계시다'와 '말씀하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보기〉의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치고, '내가'를 '선생님께서서'로, '있는'을 '계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간접 인용 표현인 '선생님께서 길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위험하니깐 선생님께서 계신 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에서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와 '말씀하셨다'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알맞게 바꾸고, 인용된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용법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5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고, 인용된 문장의 높임 표현의 용법을 설명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거나 인용된 문장의 높임 표현의 용법 중 하나만 설명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4 신문 기사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생산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사의 제목, 본문 내용, 제시되는 사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고,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개인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드러나므로 검증 안 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15 (가)에서는 ○○ 동물원에서 진행되는 멸종 위기종 보전과 번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의 목적이 정보 전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신문 기사라는 점에서 예상 수용자가 사육사나 수의사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가)에는 ○○ 동물원 외의 다른 동물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④ (나)는 남방큰돌고래의 사례를 통해, 동물원은 동물들이 습성대로 살 수 없으므로 동물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의 역할 강화와 거리가 멀다.

⑤ (나)는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생태 법인 제도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가)는 ○○ 동물원이 일반적인 동물원의 기능을 넘어 동물의 생태 환경까지 제공해 동물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⑤와 같이 인간이 개입하여, 즉 동물원을 만들어 동물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돕는 것이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관점과 유사하다.

17 공정성 평가는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나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한지를 평가한다. 이를 (가)에 적용하면 반대 측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에서는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살아야 하는 일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평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18 '꼬리별'은 동물원의 수족관이 남방큰돌고래가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생산자의 의견에 대해 동물원이 더 안전할 것 같이라며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등급 서는습형

19 | 예시 답 | 매체 수용자의 궁금증이나 예상 반응을 살피고, 이에 대해 동물 보호 전문가와 생태 법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매체 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음을 모두 서술한 경우	5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내용만을 서술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학교 시험 직전 대비 문제

1단원 실전 모의고사

본문 180~187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5 해설 참조 06 ① 07 ③
 08 ② 09 ③ 10 ⑤ 11 ③ 12 해설 참조 13 ④ 14 해설
 참조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③ 23 ② 24 해설 참조

01 (가)에서는 ‘-없이’, ‘구름과 빛과 시간’ 등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고, (나)에서는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만 1연과 5연에 같은 시구를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나)에서만 ‘나(나룻배)’와 ‘당신(행인)’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통해 희생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나)에서만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점층적 표현과 대상의 역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울렁이머’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을 대하는 화자의 설레는 정서를 함축하고, ‘온종일’은 그러한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뛰어가’와 ‘잡아다’는 모두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해 무심코 반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천천히’와 ‘조용히’는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랑의 모습을 함축한다.

③ ‘호젓한’은 ‘넋 놓고’와 조용하여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맞이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주어진 상황을 방관하는 화자의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잔잔한’은 ‘떠 있는 배’와 연결되어 ‘배’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보여 준다. 대상 간에 조성된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3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머’는 빛이 환한 바다 위에서 파도에 일렁이는 배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사랑에 빠져 설레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며, 벽차오른 사랑의 감정에 당황해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뺏줄’이 날아온 상황은 ‘배’를 매는 행위를 하기 전 상황으로 배를 매는 행위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2연의 ‘배를 매게 되는 것’은 1연의 배를 매는 행위와 연결되는데, 이는 2연에서 ‘사랑은’과 호응되어 사랑이 배를 매는 것처럼 인연이 맺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3연의 ‘구름과 빛과 시간’은 ‘배’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있는 주변의 것들이다.

④ 4연의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04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은 ‘나’가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시련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안고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을 건너고 있으므로, ‘여울’을 ‘나’와 ‘당신’의 관계를 단절하는 장애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나룻배로 ‘행인’인 ‘당신’이 물을 건너도록 해 주고 있다.

② 훑발로 ‘나’를 짓밟고 물만 건너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당신’과 그런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는 ‘나’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당신’을 향한 ‘나’의 희생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④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는 상황은 고난을 극복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나’는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변함없이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5 |예시 답| (가)의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을 의미하고, (나)의 ‘배’는 희생하고 인내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와 (나)의 ‘배’가 지닌 의미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가)와 (나)의 ‘배’가 지닌 의미 중 한 가지의 미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6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갈등 상황을 상대에게 말을 하듯이 구어체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07 장인이 ‘불기 짝을 후려갈’기자 ‘나’가 ‘수염을 잡아채는 행동’은 ‘나’가 점순이를 의식해서 점순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다. ‘나’가 약자로서 연민과 동정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생각하고 관객이 낚다고 피병을 부리는 ‘나’의 행동은 ‘나’의 어수룩함과 결합되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②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통겨지면서 뺨창이 꺾끗한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익살스러운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작

품의 해학성을 높여 준다.

④ '나'는 점순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장인과 격한 대결도 서슴지 않는다. '나'가 '제 원대로 했으니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라며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나'의 어수룩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와 장인의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해 해학성을 극대화한다.

08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구성과는 달리, 절정에 해당하는 '나'와 장인의 희극적 싸움을 결말에 해당하는 '나'와 장인의 화해 뒤에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나'와 장인의 화해보다는 '나'와 장인의 희극적 싸움을 부각시켜 작품의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뒷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나'와 장인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09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 ㉠은 '나'의 공격에 장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가 겁이 난 상황으로 '나'의 모질지 못한 성격을 보여 준다. ㉠에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구장님한테 갔다가 별 소득 없이 온 '나'에게 점순이가 '바보'라고 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점순이가 자기를 병신으로 볼까 봐 걱정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②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것은 울타리 구멍으로 장인과 자신의 모습을 엿보고 있는 점순이를 의식하여 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③ 올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로 '나'를 회유하여 일을 시키려는 장인의 교활한 면모를 알 수 있다.

④ 장인의 교활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나'의 어수룩하고 순진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11 '나'가 꾀병을 부리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기 위한 것이지, 장인과 갈등하는 상황이 성가시기 때문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구장님한테까지 갔다가 그냥 온 '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답답해하는 점순이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한다.

② 장인이 '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징역 간다는 말로 '나'를 협박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

④ 울타리 뒤에서 엿보고 있는 점순이를 의식하여 수염을 잡아챌며 호기롭게 소리 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

⑤ 장인에게 성례를 요구하도록 부추기던 점순이가 막상 장인의 편을 들자 당황하여 망연자실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

12 | 예시 답 | [A]에서 점순이는 장인에게 성례를 적극적으로 요구 하라고 '나'를 충동질한 것과 달리 장인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는 사건 전개 양상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A]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순이의 태도와 그 태도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A]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순이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그 태도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3
	[A]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순이의 태도와 그 태도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이 모두 미흡한 경우	1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3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으므로 사건을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창작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4 | 예시 답 | 사랑했던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이 준경에게도 일어나 사랑하는 준경이마저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태운의 대사 중 '내 니를 사랑하는 걸 들을까 봐……. 그만 니까지 그래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니를 멀리한 거다…….'라는 부분에서 준경의 엄마와 누나를 잃게 한 불행이 준경에게도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태운이 그동안 준경을 멀리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태운이 준경을 멀리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태운이 준경을 멀리한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5 ㉠은 박 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고 소식을 태운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박 기사는 직접 목격 한 사고 소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

16 태운은 엄마와 누나의 죽음이 준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 준경이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 주고 싶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17 극 갈래인 (라)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표정 변화를 인물이 연기를 통해 직접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전달한다. 반면 <보기>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표정 변화가 서술자에게 의해 묘사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와 <보기> 모두 인물의 고백을 통해 이야

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보기>는 '준경은 화를 억누르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와 같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라)의 '화를 억누르려 애쓰는 준경'은 연기를 지시하는 부분으로 서술자의 서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라)와 달리 소설 갈래인 <보기>는 작품 밖 3인칭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⑤ (라)와 <보기> 모두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8 (가)는 수필, (나)는 설로 모두 교술 갈래에 속한다.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드러낸다.

19 (가)는 글쓴이가 자동차를 몰고 밤에 고속 도로를 운전한 후 풀벌레들이 차에 부딪혀 죽은 모습을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는 글쓴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제시하면서 큰 동물이나 하찮은 생물이나 모두 생명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있다.

20 글쓴이는 '풀 비린내'를 경험한 후,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풀 비린내'에 대해 자신만이 경험한 일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풀 비린내'를 경험한 후, 자동차에 길들여지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게 된다.

② 글쓴이는 '풀 비린내'를 경험한 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자신이 수많은 생명을 살상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된다.

③ '풀 비린내'는 자동차가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풀 비린내'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후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21 (나)에서 '어떤 사람'은 큰 동물인 '개'의 죽음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찮은 생물인 '이'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면서 큰 동물과 하찮은 생물의 죽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글쓴이인 '나'는 '달팽의 뽀'와 '쇠뽀', '메추라기'와 '붕새'처럼 하찮은 생물과 큰 동물을 대조하면서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즉 대조적 성격의 예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2 (나)의 '어떤 사람'은 큰 동물과 하찮은 생물로 구분하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엄지손가락'은 큰 동물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찮은 생물에 해당한다.

23 ㉠은 의도치 않게 다른 생명체를 죽인 결과이다. 글쓴이가 운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야간 운전이 어려움을 겪은 원인은 과는 거리가 멀다.

24 | 예시 답 |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뿐 아니라 지구 생태 환경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보기>에는 자동차가 우리의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덜 이용하는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나타나 있다. 또한 (가)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이므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한다. 따라서 ㉠에는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뿐 아니라 인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다짐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와 (가)의 내용을 포함하여 ㉠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보기>와 (가)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한 경우	3
	㉠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7 해설 참조 08 ⑤ 09 ②
10 ⑤ 11 ③ 12 해설 참조 13 ④

01 진로 독서를 할 때 읽은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때에는 흥미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화제와 관련되면서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진로 독서를 위해 글이나 매체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② 읽어야 할 책이나 매체 자료의 목록을 작성할 때는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 않은지, 주어진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책이나 매체 자료는 목록에서 뺄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도 있다.

③ 읽기 목록에 있는 책이나 매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선정한 책이나 매체 자료를 빠르게 훑어 읽고, 읽기 목적에 어울리는 부분만 선정하여 꼼꼼하게 읽을 수도 있다.

⑤ 독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는 핵심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02 이 글의 2~3문단에서는 각 문단의 처음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관련한 주장을 밝히고, 그 뒤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노벨상 수상자들, 넬슨 만델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물론 하루 스물네 시간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는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에 대한 예상 반론을 생각하며 글쓴이가 반박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몰두하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들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이 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중심 화제를 제시한 것으로, 설의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3 이 글에서는 신나게 살기, 의미 있게 살기, 몰두하며 살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언급하지 않았다.

04 (가)는 건축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과거 건축과 현대 건축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현대 건축의 경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에서는 아파트와 땅콩집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행복한 집의 사례로 땅콩집을 들고 있다. 그런데 (다)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화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건축 학계에서 정의하는 건축가의 일반적 개념을 제시하여 건축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나)는 현대 건축과 과거 건축의 특징을 비교하여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다)는 땅콩집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건축이 실용보다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나)는 과거 건축과 현대 건축을 비교하며 과거 건축이 전통적인 가치로 건축물들을 평가한 것에 비해, 현대 건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건축물을 평가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다)는 땅콩집과 아파트를 비교하며 땅콩집은 아파트에 비해 이웃과 함께할 수 있어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05 ㉞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건축가와 건축주가 동등한 관계임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06 학생은 ㉞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글쓴이가 설명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7 | 예시 답 | (가) 건축가가 하는 일과 건축가가 지녀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 (나)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다) 미래의 건축에서 건축가가 지향할 것은 무엇인가?

(가)~(다)는 건축가가 지녀야 할 역량과 자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독서 결과 중 (가)~(다) 각각에서 제시한 건축가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모두 의문문 형식으로 서술한 경우	5
	독서 결과 중 (가)~(다)에서 건축가에 대한 중요 정보를 두 가지만 의문문 형식으로 서술한 경우	3
	독서 결과 중 (가)~(다)에서 건축가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한 가지만 의문문 형식으로 서술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 • 의문문이 아닌 경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8 (가)는 글쓴이의 동료 연구자인 할러데이 교수가 언급한 ‘외국인’이라는 특정 어휘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있

고, (나)는 할러데이 교수가 실제 겪었던 경험담을 제시하며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라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09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는 단정적 사고는 (가)에서 할러데이 교수가 지적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고정 관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외모를 기준으로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는 못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0 <보기>는 내국인에게는 한국어 상세 정보를, 외국인에게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쓰인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언어 구사 능력과 관계없이 국적에 따라 언어 표기를 달리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구분 방식은 각 사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관점에서는 관광 안내 책자를 국적에 따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눈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에서 할러데이 교수가 한국어 안내 책자를 집고 싶어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보기>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다양한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 안내 책자를 국적에 따른 분류로 이해하고 있을 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확대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 안내 책자의 분류가 관광객의 편의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11 (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른 국적 혹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 예시 답 | 다문화 사회에서 하나의 공용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며, 언어 공동체가 다문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의 관점에서 <보기>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박한 경우	5
	(가)의 관점을 서술하였으나, <보기>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박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3 (나)의 '목요일'의 사례는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다루고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 간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목요일'이라는 같은 단어에 대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말은 배워도 소통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깐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고 금요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관습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주말'이라는 일상생활의 시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해설
 참조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③ 16 ② 17 ⑤
 18 ① 19 ③ 20 ② 21 해설 참조 22 ⑤ 23 ④ 24 ③ 25 ④
 26 ⑤ 27 해설 참조 28 ② 29 ④ 30 ③ 31 ④

- 01 '더듬지'를 [더듬찌]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교체는 전체 음운 개수의 변화 없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02 '꽃망울'에서 '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꽃망울이] 되고, 다시 'ㄷ'이 'ㅁ'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 [꼇망울]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난 결과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④ '꽃'은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뿐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츠'이 [ㄷ]으로 바뀌어 [꼇]으로 발음된다.
 ② '꽃이'가 [꼬치]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의 받침을 그대로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도 적용된다.
- 03 '협력[협녁]'은 앞 음절의 받침 'ㅂ'과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각각 [ㅁ]과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하는 예이다.
- 04 '달는'은 제18항에 따르면,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단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05 '먹을 것이[머글꺼시]'에서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에 적용되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것'은 어미가 아닌 의존 명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꽃병[꼇뽕]'은 명사 '꽃'과 명사 '병'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단어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② '손재주[손째주]'는 명사 '손'과 명사 '재주'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단어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④ '먹을 것이'는 '먹을'과 '것' 사이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예이다.
 ⑤ '꽃병'은 받침 '츠'이 [ㄷ]으로 바뀌고 'ㄷ' 뒤의 'ㅂ'이 된소리가 된 예이다. 그리고 '손재주'는 'ㄴ' 뒤의 'ㅈ'이, '먹을 것이'는 'ㄹ'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바뀐 예이다. 따라서 'ㄷ'이나

'ㄴ', 'ㄹ' 뒤에 파열음 'ㄱ', 'ㅂ'이나 파찰음 'ㅈ'이 이어질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06 '잠기다'는 '잡그다'의 피동사로, 피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품고'와 '줍게'는 ㉠의 경우로, 어간 받침 'ㅁ(ㅁ)'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각각 [품꼬], [줍께]로 발음된다.
 ④, ⑤ '결석'과 '갈등'은 ㉡의 경우로,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ㅅ'과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각각 [결썩], [갈똥]으로 발음된다.
- 07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는데, 이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에 속한다.
| 오답 풀이 | ② '먹는[멍는]'은 '밥물'과 같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③ '생일날[생일랄]'은 '달님'과 같은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웃을) 입고[입꼬]'는 '발동'과 같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⑤ '문을 닫는[단는]'은 '밥물'과 같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08 구개음화는 경구개와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인 'ㅣ'의 영향으로 구개음이 아닌 자음 'ㄷ, ㅌ'을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동화 현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해돋이'는 받침 'ㄷ'이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해도지]로 발음된다.
 ② 구개음화는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발이'는 받침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④ '곧이어'는 받침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 09 | 예시 답 | • 단어: '굳히고' • 변동 과정: '굳히고'는 [구티고→구치고]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ㅌ'이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ㄷ]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굳히고'는 [구티고 → 구치고]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 | 평가 요소 | 채점 기준 | 배점 |
|-------|--|----|
| 내용 |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고, 음운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 |
| |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았으나, 음운의 변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 3 |
| | '굳히고'의 발음만 바르게 제시한 경우 | 1 |
| 기타 |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
- 10 ④의 '떠'는 '뜨-+-어'의 과정에서 어간에 있던 'ㄷ'가 탈락

되어 발음되므로, 교체가 아니라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난로[날:로]는 유음화, ② 걸멧[걸멧 → 건멧]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③ 멧진[멧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⑤ 감고[감꼬]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11 ‘꽃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꼐고]가 되고, 된소리되기에 의해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꼐꼬]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논리’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적용되어 [눌리]로 발음된다.

③ ‘굳이’는 받침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ɟ]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구지]로 발음된다.

④ ‘국민’은 파열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궁민]으로 발음된다.

⑤ ‘받느’은 파열음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반느]으로 발음된다.

12 ‘커서’는 ‘크다’가 활용하면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없고[업:꼬]’, ‘밭고[밥:꼬]’는 자음 앞에서 ‘ㅃ’, ‘ㅆ’이 [ㅍ]으로 발음된 것으로,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오면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의 예이다.

③, ⑤ ‘놓으니[노으니]’, ‘닿아[다라]’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하는 현상의 예이다.

13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 한해 이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는데, ‘ㅣ’, ‘ㅁ’, ‘ㄴ’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일어난다. ‘깨어’와 같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값도’는 겹받침 ‘ㅃ’ 중 ‘ㅅ’이 탈락하여 [갑도]로 바뀐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또]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옳지’는 [올치]로 발음되며, ‘ㅎ’이 ‘ㅅ’과 결합하여 [ㅆ]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난다.

② ‘입고’는 [입꼬]로 발음되며, 된소리되지만 나타난다.

④ ‘맞지’는 [만치]로 발음되며, ‘ㅎ’이 ‘ㅅ’과 결합하여 [ㅆ]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난다.

⑤ ‘소개받느’은 [소개반느]으로 발음되며,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만 일어난다.

15 ‘값어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ㅃ’에서 ‘ㅅ’이 탈락하여 [갑어치]가 되고, 연음에 의해 [가버치]로 발음된다.

16 <보기>의 예 중 ‘ㄴ’ 탈락의 경우만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준 표기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음운 변동 현상은 발음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비음화는 ‘ㄱ-+-는[깡는]’과 ‘입-+-느나[입느나]’, ③ 구개음화는 ‘밭이[바치]’와 ‘술이[소치]’, ④ 된소리되기는 ‘답-+-고[담꼬]’와 ‘웃+고름[온꼬름]’,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밖[박]’과 ‘부엌[부엌]’에 해당하며, 모두 음운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17 ‘낱아서[나아서]’는 음운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놓고[노코]’는 ‘ㅎ+ㄱ’ → [ㅋ], ② ‘잡힌[자핀]’은 ‘ㅂ+ㅎ’ → [ㅍ], ③ ‘젓히고[저치고]’는 ‘ㅅ+ㅎ’ → [ㅆ], ④ ‘파랳다[파라타]’는 ‘ㅎ+ㄷ’ → [ㅌ]의 과정을 거친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해당한다.

18 ‘부엌일’은 ‘부엌’과 ‘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엌일 → 부엌닐 → 부엌닐]과 같이 ‘ㄴ’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19 ㉠ ‘무덤가[무덤가]’는 명사 ‘무덤’과 명사 ‘가’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로,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언론인들은 비록 일부가 ‘폭팔’이라고 발음하긴 하나, ‘폭발’이라는 철자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언론인들 대부분이 [폭팔]이라고 발음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폭발’의 표준 발음은 [폭뵵]이다.

21 |예시 답| ㉠ [꼬탄송이], 음절의 끝소리3리 규칙에 따라 [꼐한송이]로 바뀌고, ‘ㄷ’과 ‘ㅎ’의 축약으로 [꼬탄송이]가 된다.

• ㉡ [줄림끼], ‘줄’의 ‘ㄹ’로 인해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줄림끼]로 바뀌고, ‘ㅁ’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줄림끼]가 된다.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따라서 ‘꽃 한 송이’는 [꼬탄송이]로 발음할 수 있다. ‘줄넘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줄림끼]로 발음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 ㉡의 표준 발음과 각각에 일어난 음운 변동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 ㉡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쓰고 ㉠과 ㉡ 중 하나의 음운 변동 과정을 서술한 경우	3
	㉠, ㉡의 표준 발음만을 정확하게 쓴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2 영호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민이는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여 화제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여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양의 격률을 위배하여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23** 질의 격률은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말이나 근거가 불충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24**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과의 대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 주는 원리인 체면 유지의 원리와 관련된다.
- 25** 민호의 대답은 겉보기에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위배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26 ㉔에서는 관용의 격률을 적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표현으로 고쳐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요령의 격률, ② 동의의 격률, ③ 겸양의 격률, ④ 칭찬의 격률을 적용하여 바르게 고친 사례들이다.

27 | 예시 답 | (가)의 윤주는 유출된 개인 정보 4천만 건을 전 국민의 개인 정보라고 말함으로써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나)의 강 코치는 기범을 스카우트하고 싶은 상황에서 기범을 비방하는 말을 하며 칭찬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가)의 윤주는 부정확한 정보, 즉 거짓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나)의 강 코치는 비방의 말을 하며 기범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와 (나)의 인물이 어긴 격률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가)와 (나)의 인물이 어긴 격률을 썼으나, 그 이유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가)와 (나)의 인물들이 어긴 격률만 쓴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28** ㉔은 상대방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불쾌한 말이므로 부탁의 효과가 떨어진다.
- 29**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병어리장갑’은 장애 차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엄지장갑’이나 ‘손모아장갑’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 풀이 | ① ‘결정 장애’는 장애를 희화화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차별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③ ‘살색’은 피부색을 나타내는 말로, 전통적 담화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을 소외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

⑤ 차별 표현은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30** “늙은이도 세 살 먹은 아이 말을 귀담아들으랬다.”라는 속담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으라는 담화 관습을 나타낸다.
- 31** ‘솔직한 대화’ 제도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담화 관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솔직한 대화’ 제도와 일치한다.

01 ④ 02 ② 03 ⑤ 04 ⑥ 지역성 ⑥ 근거 05 ④ 06 해설 참조 07 ①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해설 참조 14 ③ 15 ④ 16 해
설 참조 17 ④

01 1문단에서 ‘초연결성은 지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 물음과 관련하여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초연결성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 사례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있을 뿐, 사회적 현상의 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언급하고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두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이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도 형성하지만, 특정 지역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연결망도 형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연결망이 원심적으로도, 구심적으로도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연결성이 기존에 원심적으로 작용해 온 연결망을 구심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3 ㉠과 ㉡은 모두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즉 글쓴이의 주장을 지지해 그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한다.

04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단위로 동네 생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 친밀감, 애착감을 쌓아 ‘한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05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연결성에 의한 지역성 강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언급해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06 | 예시 답 | 맞춤형 정보의 제공은 같은 동네에 속한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늘려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만든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 지역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가 지역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7 초연결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이 그 양과 범위가 광대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초연결망을 통한 정보 수집의 양상을 제시한 것으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의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③ 글쓴이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반론에 대해 지역성이 능동적으로 생성되어 강화된다는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④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대면 모임을 갖고 소소한 일상이나 감성을 공유하는 것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⑤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보는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이다.

08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동네 생활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결합하도록 매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동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동료애 같은 개인적 유대뿐만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개인적 유대보다 사회적 유대 관계를 중시하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에서 ‘역설적이게도’라고 말한 까닭은 연결망은 사방으로 뻗어 세계 곳곳에 닿고 있는데, 이 연결망을 기반으로 세밀한 지역 단위를 의미하는 동네 생활권 개념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심적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의 특성과 동네 생활권 개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10 찬성 1은 입론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와 관련하여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구성하여 필수 쟁점별로 입론을 펼치고 있다.

11 찬성 1은 입론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 치료제'의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 치료제를 제공한 실제 사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치료제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면제될 경우 이 치료제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률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찬성 1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는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찬성 1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해결 방안에 따른 이익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주장하였다.

12 ㉠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된 근거이므로, 국제 사회가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전염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 많은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3 **|예시 답|**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을 질문하여 자료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하려는 것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한다는 발화 의도와 질문을 통해 자료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하기 방식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한다는 발화 의도와 질문을 통해 자료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하기 방식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4 반대 1은 입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언급하였으나,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5 반대 측은 새로운 정책(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반대 1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한 반대 측의 입론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를 사례로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와 달리 전염병 백신의 생산은 훨씬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며 차이점을 언급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여 큰 이익을 본 선진국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의 백신과 치료제 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 **|예시 답|** 백신 양극화의 심각성은 인정하되 그것의 원인이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적절하게 언급하였으며, ㉠을 통해 반대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을 통해 반대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7 반대 1은 입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모두 잘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반대 1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문제 해결 방안에 따른 이익 등과 관련된 세 가지 필수 쟁점에 대해 모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③ 반대 1은 '얼마 전 보도된 뉴스'라고만 하였을 뿐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⑤ 반대 1은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측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를 반박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해설 참조 07 ② 08 ④
 09 해설 참조 10 ② 11 해설 참조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② 19 해설 참조 20 ② 21 ⑤

01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하며,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청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고, 비격식체는 청자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주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것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으로, 주체 높임은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등의 어휘를 주로 사용하고, 객체 높임은 '여쭙다/여쭙다', '모시다', '드리다' 등의 어휘를 주로 사용한다.

02 ㉠은 학급 회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화자가 '이태준 학생이 발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화자가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은 쉬는 시간으로, 화자가 '태준아, 축구하러 가자.'라고 말한 것은 화자가 청자와 가까우며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 ㉡ 모두 청자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격식체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주로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② '발언하겠습니다'는 격식체 중 아주 높임인 하십시오체에 해당하고, '가자'는 비격식체 중 두루 낮춤인 해체에 해당한다.

③ ㉠과 ㉡에서 화자는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청자는 태준으로 동일한 대상이다.

④ ㉠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다소 거리를 두고 격식체를 쓰지만, ㉡과 같은 사적인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에 따라 해요체와 해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03 ⑤ '아드님께서'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간접 높임한 것이므로 객체 높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와 '잡수신다'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② 주격 조사 '께서'와 '부르셨다'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③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이다.

④ '예쁩니다'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고객님'을 높인 상대 높임 표현이다.

04 ⑥의 '손'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의 신체 일부분이므로 간접 높임을 통해 '크셨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오셨습니다'는 '나왔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의 청자는 '고객님'이므로 상대 높임 표현의 하나인 '나왔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에서 음료를 주문한 주체는 '고객님'이므로 주체 높임인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주문하신'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⑤ 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내미신'은 적절하다.

05 ㉠의 '본'은 '보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06 |예시 답|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겠-'의 여러 용법 중에서 제시된 문장에서는 화자가 도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쓴 경우	3
	화자의 의지 외에 다른 용법을 함께 쓴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07 ②의 '하고 있다'는 '-고 있다'가 결합해 진행상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어 있다'가 결합된 완료상이다.

③ '-어 두다'가 결합된 완료상이다.

④ '-어 내다'가 결합된 완료상이다.

⑤ '-아 버리다'가 결합된 완료상이다.

08 ㉠의 목적어인 '동생'이 ㉡에서 주어로 나타나므로 동작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능동문이므로 주어인 '언니'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② ㉡은 '업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표현이다.

③ ㉠의 주어인 '언니'는 피동문인 ㉡으로 바뀔 때 부사어가 된다.

⑤ ㉡은 피동문으로 '업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동생'이 강조된다.

09 |예시 답| • 고친 표현: 달혔는지(또는 달아졌는지)

• 고친 이유: '달혀졌는지'는 '달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후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기 때문이다.

'달혀졌는지'는 '달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후 '-어지다'가 또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고친 표현과 고친 이유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어법에 맞게 고쳤지만, 고친 이유를 쓰지 못한 경우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0 ㉔의 ‘먹인다’는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표현이다.

11 | 예시 답 | 나는 어제 동생에게 “네가 주문한 택배가 이미 출발했으니 내일 올 거야.”라고 말해 주었다.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동생’을 청자인 ‘너(네)’로, 발화 시점이 ‘어제’이므로 ‘오늘’을 ‘내일’로 바꾼다. 그리고 ‘올 거라고’의 종결 표현을 ‘올 거야’로 바꾼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직접 인용 표현에 맞게 모두 정확하게 바꾼 경우	5
	잘못 바꾼 부분이 1개인 경우	3
	잘못 바꾼 부분이 2개 이상인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12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들을 일컫는다.

| 오답 풀이 | ① 사고 도구어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표현한다.

② 사고 도구어는 정교한 개념을 표현한다.

③ 어휘 선택을 통해 격식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 화제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부정적 태도 등을 드러낼 수 있으나, 사고 도구어를 통해 맥락에 따른 화자의 태도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사고 도구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보다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13 매체 자료에는 자료를 생산한 사람의 특정한 관점과 의도가 담기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지 살펴보아야 한다.

②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에 제시된 정보나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③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매체 제작 자세와 관련된다.

④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14 ④는 예상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아니라, 제작 목적에 대한 논의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는 모두 예상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매체 제작 계획의 논의이다.

15 <보기>의 매체 활동은 ‘교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와 관련된 캠페인의 결과 보고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수용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⑤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실천하지는 의견을 낸 것이 수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들을 언급한 것은 예상되는 수용자의 연령 및 세대를 고려한 것이다.

② 교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실천하지는 주장은 실천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므로 설득의 목적을 나타낸다.

③ 애초에 음식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교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주장하는 매체 내용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④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전달 범위가 넓고 전달 속도가 빠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

16 주로 신문사의 기자가 작성하는 (가)에 비해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나)는 설득의 목적이 나타난다.

② (가)는 신문 기사이므로 인터넷 매체인 (나)에 비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다.

③ (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수용자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

④ (나)는 신문 구독자에 한정되는 (가)에 비해 매체 자료의 전달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17 부제에서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발돋움’이라는 언급을 통해 ○○ 동물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신문 기사로, 문자 언어를 통해 ○○ 동물원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표제의 ‘이런 일도?’는 ○○ 동물원이 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부제에서는 표제의 내용을 보충하여 동물원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⑤ 판다를 보여 주는 사진 자료는 ○○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멸종 희귀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동물 보호와 번식을 위한 ○○ 동물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8 ②의 '미리내'는 설문 조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으며 설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의 '고양이'는 매체 생산자의 의견을 보충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③ ②의 '꼬리별'은 동물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매체 생산자의 의견과는 반대로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③의 '흔들바위'는 동물원이 왜 돌고래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정보의 타당성에 의거한 궁금증을 나타낸 것이다.

⑤ ④의 '개울가'는 남방큰돌고래를 지켜 주려면 법적인 권리를 줘야 한다고 하여,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는 매체 생산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19 | 예시 답 | ③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하여 ㉠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주체적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에서는 돌고래 보호 운동가가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의 현실에 대해 한 말을 제시하고, ㉠에서는 이를 근거로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살도록 해야 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

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③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의 주장을 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③이 근거이고, ㉠가 주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밝힌 경우	3
	③이 근거이고, ㉠가 주장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의 내용만 서술한 경우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 단위로 0.5점씩 감점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20 카드 뉴스에서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보장해야 동물원을 허가해 주는 동물원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동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것이므로 ㉡가 가장 적절하다.

21 <보기>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할 매체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에서 사진과 영상 자료가 필요하므로 블로그를 활용하자는 의견은 매체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